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99-14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수상작作品集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11876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
수상작作品集

차례

—

한국농촌건축대전 소개	4
-------------	---

준공부문

공모요강	8
심사평	10
대상	22
본상	28

계획부문

공모요강	46
세부설계지침	48
공모대상마을 현황	53
심사평	56
대상	64
우수상	66
특별상	70
특선	72
입선	78

진행과정

진행과정 갤러리	122
포스터 및 리플렛	126

한국농촌건축대전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어촌지역의 우수한 준공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부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를 주제로 학생 및 일반인들의 공간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계획부문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건축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나가기 위한 시도를 해온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촌과 농촌건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최 주관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주관: 한국농어촌공사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조용준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운영위원: 김두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도현학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인국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부장

양금석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종혁 | 민들레건축사사무소 대표

역대 공모주제

2006년: 제1회 | 한국농촌건축의 정체성과 다양성

2007년: 제2회 | 지역에 잠재된 가능성이 반영된 새로운 농촌 만들기

2008년: 제3회 | 지속가능한 농촌(주택)마을

2009년: 제4회 | 농어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제안

2010년: 제5회 |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제안

2011년: 제6회 | 재생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회복

2012년: 제7회 |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2013년: 제8회 | 변화와 대응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계획)

2014년: 제9회 | RURAL + URBAN = RUBAN / 농촌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

2015년: 제10회 | INTER - GENERATION / 농촌마을 시니어센터 + 주니어센터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2016년: 제11회 | Creative Village / 창조 마을 만들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2017년: 제12회 |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준공 부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멋진 할아버지 집

설계 |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본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예꽃재 :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설계 | 건축사무소 아뜰리에 마루 <구국현>

본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가로 집

설계 | 이화여자대학교 <이윤희>, (주)이우건축사무소 <조종우>

본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해양생태체험관

설계 | 지요건축사무소 <김세진>

본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버터모닝

설계 | (주)아뜰리에일일건축사무소 <박현모>

공모요강

공모대상

국내 농어촌지역(읍면)에 준공 완료된 우수한 건축물

출품자격

개인(설계자 또는 건축주) 또는 팀(설계자 + 건축주) 구성

설계자 | 건축물 대장 또는 설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설계자

건축주 |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주

* 개인 또는 팀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 지정해야 함

일정

구분	일정	주요 사항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	6월19일(월)~7월26일(수)	홈페이지 접수
1차 심사	7월 31일(월)	서면 평가
2차 심사	8월 9일(수) ~ 11일(금)	1차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하여 현장심사
수상작 발표	9월 12일(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전시	10월26일(목)~11월1일(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	10월26일(목)	

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면 (작품설명서) 심사

2차 심사 | 현장 심사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시행)

심사위원장 : 이관직 (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심사위원 : 고영학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김두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김승근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도현학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창섭 (한국농어촌공사 대표건축사)

정건채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시상 내역

구분	작품수	상장 (설계자)	명판 (건축주)
대상	1 작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분상	4 작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농어촌지역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물 부착용 명판수여

심사평

이관직 (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

농촌건축대전은 건축물의 개념과 창의성, 설계의 합리성의 건축적 완성도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여도의 두개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합의를 통해서 건축완성도와 농촌기여도의 기준을 1)농촌사회,지역 파급효과, 2)창의성, 3)시공완성도 및 시설활용도, 4)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주변과의 조화의 네가지로 세분화하여 심사했다. 2차에 오른 작품은 세개의 단독주택, 커뮤니티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된 32세대의 마을단지, 공공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총 6개였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국에 분포한 작품 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건축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 특히 단독주택은 귀농을 위한 집인듯한데 주택을 해석하는 개념들도 좋았고, 재료의 선택과 사용도 훌륭했고 마감 상세의 수준도 섬세하고 높았다.

작품을 보고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하면서 심사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전체 의견은 합의에 의해 도달했지만 위원 마다 조금은 다른 견해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위원에 한사람으로서 심사를 하면서 느낀, 개별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평을 겸해서 적어본다.

맨 처음 심사를 한 작품이 '가로집'이다. 건축가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자연과 조우하기, 줄이고 비우기, 열린 경계 만들기, 기본으로 돌아가기, 담백하게 연결하기라고 설계 작업 과정에서의 생각을 적고 있다. 대지에 대한 이해와 작업의 열정이 담겨있는 동사들이었다. 경골목구조에 벽돌 집이지만 편안하고 단순하게 일자로 펼쳐진, 흘겹의 한옥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실 앞에 경사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가 외부 데크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단독주택 단지인 '예꽃재'는 심사 중에 가장 토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었다. 현장에서 여러해 동안 쉽지않은 과정의 변경과 조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의 열정과 건축가의 노력이 빚어낸 마을 건축이다. 32개의 주택은 기본 타입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경사지형에 적응하고 있었다. 두동으로 나누어 가운데를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아이디어도 좋아 보였다. 경제적인 선택이겠지만 경량 목구조 위에 스타코로 마감된 주택 들의 외벽이 앞으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든다.

세번째로 심사한 건물은 이번 현장 심사에서 유일한 공공 건축물인 완도에 있는 '해양생태체험관'이다. 벽돌을 매스마다 조금씩 표면 질감을 다르게 처리해서 단순해지기 쉬운 큐브 매스의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전시장 내부에 과도하지 않게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수법도 좋았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시 콘텐츠이다. 주변에 장보고 청해진 유적과 기념관, 공원이라는 관광권에 묶여서 기본 관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체험관 자체의 전시물들과 프로그램이 공간 구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추후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건축적으로는 공공 건물로서 장애인의 수직 이동과 내용물의 교체 등에 필요한 수직교통의 처리가 매우 아쉬웠다.

네번째 건물은 김해에 있는 '멋진할아버지집'이었다. 건축가가 주장하는 키워드는 '토속적 한국건축'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나무를 탄화 가공해서 외벽과 처마에 반복적인 입체감을 만드는 의장요소로 사용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남서 방향으로 면하도록 주건물을 일자로 배치하고 별동의 명상공간을 북쪽에 배치하고 건물로 나누어진 외부를 공간 특성별로 영역의 이름을 부여한 것도 흥미로웠다.

부위 별로 노출 콘크리트를 내부와 외부에 사용하면서 조형미가 돋보인다. 콘크리트가 내부와 외부에 연결되면서 생기는 열교현상을 처리하기 위한 디테일이 잘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 작품은 제주에 있는 ‘버터모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거의 정사각형의 평면에 정사각형의 중정이 공간의 중심이 된다. 길에 면한 창이 없는 정면이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아쉽기도 했다. 세개의 켄을 이용한 공간 구성의 방식이 분명하면서 의외로 내부 공간의 장면은 다양하게 보이는 점이 좋았다.

자료로 검토할 때와 달리 현장에서의 작품들은 건축가와 건축주가 같이 한 애쓰음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한계 내에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작품으로서, 보다 아름답게 만들려는 마음과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노력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지않은 건축적 완성도와 농촌 기여도를 함께 노력한 작품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고영학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한국농촌건축대전(준공건축)은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 농어촌지역(읍면)에 준공 완료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는 대전으로 금년도는 준공완료 된 15팀의 작품을 접수하여 지난 7월에 심사전문위원을 통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팀의 작품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추진하였다.

심사의 기본방향은 지역적 특성 및 주변 자연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 시공적 완성도를 검증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우수한 건축물 선정하는데 있다고 본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었고 또한 8월의 폭염과 폭우로 피해가 심했다. 8월 상순의 무더위에 2박3일 동안 한국농촌건축대전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남 완도, 경남 김해, 제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무척 힘든 일정이었다. 특히 하루에 1,000km 넘는 강행에도 한국건축대전의 취지와 주제에 부응하는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멋진할아버지집>

경남 김해시의 멋진할아버지집은 언덕위에 지은 선비적인 느낌을 풍기는 건축으로 김해지역에 많이 자생한 대나무를 탄화 열처리하여 벽돌이나 콘크리트벽이 아닌 아주 특이한 형태의 외장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건축형태는 전통가옥의 양식을 도입하여 툇마루, 사랑채, 서재, 장독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토속적 공간과 현대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대나무를 활용한 부문에서 친환경성이 높아 농촌의 파급효과와 창의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예꽃재>

충남 아산시의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은 이름 그대로 신규로 조성된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 촉진을 위한 전원마을로 신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을 에너지 중심으로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마을이다.

32개의 주택이 모두 다르게 설계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과 내부를 볼수있었고, 마을 이름처럼 도예, 풍물, 요가 등 신나고 행복한 체험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유럽의 전원마을의 느낌이였다

한의사가 있어서 무료 침술을 함으로써 인근 마을주민과 용화가 잘되고 시설물의 활용도가 높고 주변과의 조화 등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였다.

<가로집>

경기 양평의 가로집은 마을 계곡의 가장 뒤에 자리 잡아 마을 전체를 내려다 보고 있으며 집 뒤편은 참나무 숲으로 에워싸여 조용한 농촌생활을 연상하는 풍경화 같은 분위기였다. 거실 유리창이 넓어 전망이 좋으며, 특히 벽난로 설치와 환관입구 맞은편의 벽을 유리로 설치하여 건물 뒤편의 자연숲을 그림처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농촌주택에서 볼 수 있는 장독대가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해양생태관체험관>

전남 완도군의 해양생태관은 이번 건축대전의 유일한 공공건물로 바다와 청해진 역사유적으로 장소의 특성을 제시하는 건축으로 체험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건물 외벽은 돌출된 회색벽돌을 사용하여 갯벌색상과 일치하여 주변 바다환경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내부 천정은 3개의 관통으로 빛이 들어오게 설계되었으며, 내부 디자인, 조명 등 각 공간마다 다르게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장보고 공원, 십터, 유적지와 연계 등 주변 공간을 적극 활용하였다.

<버터모닝>

제주시 애월읍의 버터모닝은 단순한 도시의 제과점이 아닌 빵을 만들고 좋은 사람과 빵을 즐기는 조용한 시골의 카페 형태의 건축으로 내부는 □형으로 4개의 공간을 활용하였으며, 가운데는 나무가 식재되고 천정은 오픈되어 조금은 특이한 건축양식이었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가주택 마을내에 소재하면서 1층 건물로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어 이웃농가와 마찰없이 소통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한국농촌건축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는 한옥위주의 주택이었으며, 1970~80년대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부역을 개량하고, 콘크리트, 평지붕 등 양옥형태의 농촌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도 있었지만 규격화된 일괄형태의 집장사 위주의 획일화된 주택이 건축되었다고 한다.

2010년대 이후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이 시작되어 다양하고 운치 있고, 시각적인 건축 즉 경관을 중요시하는 건축, 농촌과 도시를 교류하고 조화하는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농촌주택은 전통한옥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건축보다는 도농이 상생하는 농촌 거주자가 원하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현장심사를 통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심사시 평가항목에 건축단가, 농업인 활용도 등을 반영했으면 한다. 평가대상이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건축물이지만 농업인의 활용도를 감안하고, m²당 건축단가를 감안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건축단가가 높으면 창의적 디자인, 친환경성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준공건축 평가에서 파급효과가 중요하다 주택단가가 보통보다 몇배이상 높으면 파급효과가 낮을 것으로 본다.

둘째로 준공건축은 계획대전건축보다 일반인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높다고 본다. 준공부문에 일정금액의 상금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선진 건축에 대한 새로운 지식습득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셋째로 한국건축대전 준공부문에 대한 홍보가 보다 더 필요하다.

전국 농촌을 지나다 보면 주변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 등 아름다운 건축이 많이 보인다. 설계자, 건축주이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으면 한다.

김승근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농촌의 쇠락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계마을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라지는 지자체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와 함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과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귀농 귀촌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어촌에도 다양한 정주공간과 공공시설, 상업시설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농촌건축대전이 12회를 맞이하면서 농어촌에서의 건축공간 구현과 좋은 건축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농촌건축 공모전이라 자부 할 수 있다.

2017년도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1차 심사에서 6작품을 선정하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작품을 선정하기까지는 농촌지역의 사회성과 지역성, 주변과의 관계성을 창의적으로 잘 풀어내려고 노력한 점 등을 주안점으로 보고 싶었다.

주택으로 “가로집”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건강한 집을 기치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목조와 벽돌을 함께 사용하여 합리성과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자연경관을 내외부에서 관계 할 수 있도록 열고 닫는 계획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멋진할아버지집”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전통건축의 배치와 의미를 유지하면서 구조 기능, 미를 더하는 공간을 정리 하였다. 특히 처마와 뒷마루를 금속 소재인 골강판과 김해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으로의 구현은 창의적이었고 헤어질 때 할아버지의 푸근한 미소를 나를 흐뭇하게 하였다.

전원마을로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꽃재”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마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32가구 입주자가 사업 초기부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래 지향적인 마을 계획을 세우고 주거공간과 함께 마을 커뮤니티센터, 어린이 도서관, 도예공방 등 아직도 진행 중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을이다.

공공시설로 “해양생태 체험관”은 완도 해양 생태의 시원인 청해진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계획과 해양생태 전시 및 체험을 위한 시설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은 마음까지 넓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는 육지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제주 지역의 마을까지 들어오고 있다. “버터모닝”도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빵을 만드는 작업과 집을 계획하고 만드는 일은 어찌 보면 유사한 점이 있다. 도로에서의 인지성보다는 주변의 민가와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교감하고자한 관계 맺기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주민의 삶의 모습을 담고자한 계획은 어찌 보면 빵을 만들고 집을 짓는 연관성을 구수한 향기로 다가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업은 미래 농어촌 건축의 희망으로 보였고 농촌건축대전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며, 아쉬운 점은 농촌마을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기획과 홍보로 더 많은 건축가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농촌건축 대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도헌학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올해 12회차를 맞이하는 한국농촌건축 준공부문에 응모한 건축작품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최종결선 현장심사에는 단독주택2작품, 공동주택 1작품, 문화시설 1작품, 그리고 근생건축물 1작품 총5점이 선정되었다. 최근 도시에서의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에 따른 농촌주택의 양적 질적 증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거이외의 공공건축물에서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출품되고 있지 않음은 대한민국의 농촌 공공건축의 질적 보편화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질적 우수함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상을 수상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멋진 할아버지집'은 건축가의 농촌경관을 고려한 마감재의 실험적 시도와 전체적인 마감 디테일에서 작품성이 돋보인 작품으로 형태의 간결함과 경사지형의 해석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성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사비에 있어 대중적으로 시행되는 건축비에 많이 상회함은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농촌건축의 대중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은 아쉽다. 본상을 수상한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예꽃재'는 농촌의 전원마을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단지전체의 배치 및 각 건축물의 해석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건축물의 기본형에서 각 세대별 건축주의 요구와 경사지의 특징을 건축적 공간으로 잘 해석하여 설계하였으며, 대중적인 공사비에 준하여 건축하였음은 권장할 점이다.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가로집'은 단순한 형태의 박공지붕에 —자평면의 전통주택의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목구조의 내부 노출마감에서 디테일의 간결함이 돋보였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해양생태체험관'은 주변 관광지와의 경관을 고려한 재료사용과 내부공간의 공간연출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보였다. 내부전시기획 및 전시컨텐츠의 연출에서 건축내부공간과의 연계성이 뒤떨어짐은 아쉽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버터모닝'은 관광지가 아닌 농촌마을에 건축되는 근생건축물로 가로에 접하면서 가로에 폐쇄적인 벽으로 대응하고 내부마당을 두어 주변 주택들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평면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내부 공간의 연출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농촌건축대전 준공부문의 심사는 지역적 특성, 주변 자연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 및 시공적 완성도를 검증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바, 매년 질적인 우수성에서 향상되고 있음은 긍정적이나, 작품들이 개인주택에 치중되고 있음은 공공건축물의 홍보 및 발굴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농촌건축대전 준공부문의 선정 및 홍보를 통한 도시건축에 비하는 농촌건축의 건축가들의 관심과 질적인 발전 및 양적인 증가를 바란다.

정건채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멋진할아버지집>

서양건축의 흐름으로 본 ‘멋진할아버지집’은 양식론적으로는 박공지붕형(Gable) 고딕주택의 간결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분명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일자형(一字型) 한옥과 같은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형상화한 주택이다.

일반적으로 한옥 살림집은 문간채와 행랑채와 안채를 마당으로 분리하면서 공간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형식이나 본 ‘멋진할아버지집’은 이를 하나로 묶어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하나의 일자형주택에 문간채와 안채를 솟을 대문과 채나눔 없이 각각 좌우로 2분화시켜 배치하고, 하나의 지붕 밑에 일체화하였다. 문간채로 해석되는 좌측면의 사랑방(바깥주인의 서예공간) 외벽에 뒷마루를 ‘L자’로 거치하였고, 지붕은 한옥의 느낌을 갖도록 골이 넓은 지붕 패널을 사용, 골 사이사이 마다 대나무를 붙여 마치 서까래달린 내민 맛배지붕처럼 처리하였다. 그리고 담장과 계단은 돌담과 돌계단으로 쌓아 지역성을 담은 버네쿨러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으로 재창조하였다. 대지형태상 명상공간(컨테이너박스를 스킨 디자인함)은 뒷마당에 독립시켜 축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배치한 것 등은 작가에게 내재된 토속건축(전통주택)개념의 단면으로 이를 서양주택의 주택설계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사대지의 레벨 차를 활용하여 반지하층에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한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마을이 열리고, 특히, 1층 부부침실의 베란다에서도 마을이 열리도록 픽처 후레임(Picture Frame)기법을 사용한 것은 낙동강이 멀리 보이는 원경미와 자연마을의 중경관미를 실내로 차경하고자 하는 전통주택의 경관개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형태·평면공간계획에 반하여 실내공간은 극히 서구적이다. 박공형의 거실 콘크리트벽면과 실내마감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인데, 역시 외관과의 연속성을 주고자 했으나 전혀 다르게 반전을 야기하고 있다. 즉, 세련미와 정갈한 공간의 맛을 주지만 주거공간의 아늑한 실내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다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침실과 반지하층으로 오르내리는 노출 콘크리트 계단 역시 집주인이 멋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무장애설계를 고려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멋진할아버지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통건축에 대한 현대건축적 재해석으로 귀촌자의 생활상을 이와 같이 반영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고, 전원공간에서의 귀농귀촌자의 집으로써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예꽃재>

‘예꽃재 마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준산간지역에 신규로 조성된 현대마을이다. 마을 조성의 우수성은 무엇보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공간을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의 정서상 결코 쉽지 않은 건축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디테일을 그려냈다는 것은 금후 신규마을조성에 있어서 표본적 건축의 본(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마을을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마을을 둘러싼 주변의 산지와 계단식 수경지의 등고선을 그대로 받아 자연스럽게 마을을 배치한 것이다. 마을안길을 구부러 내고, 집들을 자연 속에 집어넣은, 즉 자연속이 전체이고, 인공적 건축이 부분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시설의 배치 상 주민공동시설 및 체험시설은 마을초입부에 배치하였고, 주택은 산등선의 마을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계를 갖고 배치하므로 하나의 주거지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원경에서 본 마을의 모습은 하나의 풍경화와 같은 이미지를 보인다. 근경 역시 직선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형과 등고선에 순응하도록 개개의 주택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이어나키(Hierarchy)를 형성하는 마을형국을 갖게 한다.

둘째, 마을과 주택이 다양성속에서 통일성(Unity)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40대의 젊은 층과 58명의 아동들이 거주하는 32세대의 가구들은 마을 커뮤니티의 핵심구성원들이며, 주택디자인의 참여자이다. 원지형이 다르듯 32가구의 요구사항도 제각기 다 달랐기에 각각의 주택은 시중의 모델하우스처럼 몇 개의 모델과는 차이가 났고, 그들의 생활상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분양의 관행을 깨고, 지역건축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거지를 만드는 주민참여디자인(People Participation Design)방법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예꽃재 마을커뮤니티와 주택디자인의 핵심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식 설계방법으로 7~8가지 유형의 다양한 주택을 창안하였던 것이다.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이 32세대 모두 동일한 것이 없다. 모든 단위세대는 경사지붕의 단순화된 박공형 주택형태(Gable Form)를 취하고 있으며, 그레이 톤의 지붕과 백색 주택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즉, 주민 스스로 지역건축가와 함께 주택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을의 주택형태는 영국농촌주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북미의 컬러니얼 주택(Colonial House)이 미국 동부의 전원주택으로 정착되었던 것처럼 예꽃재마을은 서구의 고딕형의 단순한 전원주택을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거주자들의 생활상을 공간에 담고자 형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랜드스케이프 디자인(Community Landscape Design)의 상세한 설계가 양호한 새로운 마을경관을 만들어냈다. 가가호호 보차분리된 편도 보행로와 앞마당경계와 연계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냈고, 방문객 차량은 마을공동시설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였다. 단지내부 보행통과로의 설계에 있어서 일반주민은 계단으로 통행하는데 비해 장애자들은 경사로를 이용하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Design)를 배려한 것과 부분적으로 환상 혹은 쿨데삭(Cul-de-Sac)개념의 가로패턴을 형성해줌으로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을 통해 상호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등 범죄예방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공유공간의 잔디블록, 주택의 무담장 및 조원, 우체통, 가로등, 벤치, 운동시설, 그리고 태양광경사지붕 설치 등을 지속가능한 마을디자인의 요소들로 삼아 나름 스타일을 고안해낸 것들이 가치가 있다.

예꽃재마을은 신규농촌마을조성에 있어서 하나의 본(本)으로 보아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 화전리 가로 집 >

‘화전리 가로 집’은 양평 용문면 중심지에서 4km, 서울 목동에서 약 60km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은퇴자 부부는 목동에서 귀촌한 자들로 최근 정착 후에도 매주 목동의 교회로 출석하며, 지금은 서서히 마을에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면 앞뜰과 뒷산자락이 만나는 경계(Edge)로부터 대개 5~7개의 공간범위에 주택을 입지하게 한다. 따라서 너무 산 쪽으로 배치하면 외딴집이 되고, 농지 쪽에 지으면 논 가운데 집이 되는 것이다. ‘가로 집’은 마을공간범위를 다소 벗어나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함을 더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수 은퇴자 부부는 귀촌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며, 행복감에 빠져있는 듯하다. 마을이라는 정감과 자연이라는 아름다움을 축복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가로 집’의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형을 존중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배치형식을 갖고 있다.

산지의 등고선을 거스르지 않았고, 진입경사로를 꽃길로 조성하였으며, 대문과 담장없이 잔디마당을 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Landscape Design)은 주택을 자연 속에 심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현관 앞 계단화분과 현관 뒤 픽춰 프레임 창은 잔잔한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듯 낭만과 동시에 성스러운 분위기까지 느끼게 한다. 내부공간에서 본 차경의 미(美)는 생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트인 잔디마당을 통해 먼 산을 고스란히 원경에 담을 수 있도록 고려된 것으로, 이것은 건축가와 은퇴자부부의 자연주의사상이 디자인화된 열매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둘째, 고상한 간결미(Noble Simplicity)의 형태미학을 보인다.

공간구성을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손님방과 안방을 분리하였고, 부엌 뒷마당에 바비큐공간을 두었으며, 출입문을 분리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섬세한 배려로 이해된다. 홀집의 가로평면구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삼중창과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므로 패시브하우스처럼 겨울철 난방에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구조체의 노출과 디테일을 고려한 조명의 노출, 그리고 자작나무마감의 노출은 공간의 경계를 주면서도 간결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주택의 외관형태는 박공지붕형태로 단순미가 넘친다. 원래 2층에 다락방을 두려고 했었으나 단층으로 처리한 것과 별채를 안채와 통일시켜 박공지붕으로 구성한 것은 가로 집의 특징을 잘 살린 선택으로 보인다.

셋째, 건축의 합리성과 디테일이 아름답다.

내부로부터의 구조미와 외부로부터의 서양고딕 어도브 전통미를 이 땅에 맞게 재창조한 미학의 발견은 참으로 아름답게 해석된다. 특히, 서까래의 디테일과 과감한 통줄눈 치장벽돌쌓기는 2×6 스티드 구조목을 감추고 있으나 주택의 단순미에 간결미를 더하게 해준다. 형태디자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감정이 이성적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전원주택은 다양하고, 가이드라인을 상실한 것 같다. 서양건축을 농촌마을의 컨텍스트의 흐름에 조화롭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영국농가의 영향을 받은 북미의 컬리니얼 주택유형들이 무자비하게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속에서 ‘화전리 가로집’은 우리의 전원지역 귀촌형 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양생태체험관>

해양생태체험관은 완도 앞바다에 새롭게 건축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메인 홀 전시관과 3개의 주제별 체험실을 갖추고 해양생태 전시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설계된 공공시설이며, 해안을 따라 장보고공원과 기념관 등 해양관련 문화역사를 읽을 수 있는 시설군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 건축적 특징과 구성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치계획상 해양생태체험관은 남해의 포구 해안도로의 축을 따라 동쪽을 향하여 안옥하게 배치되어 있어 원경관에서 볼 때 한 점과 같은 느낌을 준다. 반면에 근경관은 마치 장대형 매스가 해안가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스케일 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육중한 입방체의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정면출입구가 해안을 향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완도로 상에서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다.

장방형매스형태는 2층 부위를 3개의 덩이로 구분하고 그 사이 사이를 부분적으로 비우고, 부분적으로 채워가며 공간을 구성하므로 마치 웰컴 시티같이 소위 미니멀리즘(Minimalism)형태로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배경으로 볼 때는 입면형태에 관한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평선의 바다 쪽을 바라 볼 때면 이 간결한 미니

멀리즘 형태표현은 육중하고 장대하지만, 건축경관에서 절제미와 비율의 미학으로 발견된다. 장도데크의 빈 공간은 마리오 보타처럼 공간을 비워 자연을 수용하고, 나아가 조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의도하였는데, 이는 건축가의 재치로 보인다.

해양생태체험관이 갖는 자연과의 맥락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 외벽의 벽돌쌓기에서 오는 질감(Texture)일 것이다. 빛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벽면의 텍스처를 감성적으로 느끼도록 연출하였다. 벽돌을 가지고 돌출시키거나 길이쌓기를 반복하여 쌓으므로 마치 빨의 형상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포트스모던적으로 패턴화하였다. 이는 작가의 소중한 디테일연구의 결과로 보인다. 작가의 감성연출기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비의 송판노출콘크리트와 몰탈 표면의 건친 마감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무채색의 질감을 실내로 계속 끌어들이며 마침내 메인 홀에서 완성시키고자 의도한 것이다. 특히, 메인 홀의 천장에서 내려오는 3개의 원통은 하늘의 빛을 은은하게 홀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공광 위주의 전시홀 조명계획에 자연스럽게 자연광을 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벽면을 따라 설치된 계단을 오르면서 메인 홀 전체의 전시물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은 자연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전시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시효과로 극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에 반해서 전시 프로그램과 전시기법은 해양을 주제로 하는 일반적 요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완도의 바다문화와 역사적 스토리텔링은 표현하기에 다소 미흡하다.

<홍천 노일리 단독주택>

노일리 주택은 집 앞으로 홍천강이 휘몰아쳐가고, 금학산이 병풍처럼 쳐져있는 절경의 산간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마치 암수 두 마리가 산새처럼 마을의 농가들과 함께 주거지의 공간적 범위내의 중턱에 앉아 있는 모양이다. 주택의 후면부는 지형은 아산이 둘러치고 있고, 앞면부에는 텃밭이 가꾸어져 있어 도시로부터의 귀촌-귀농자에게 편안함 가운데 건강한 농촌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바깥주인은 병환 중에 있었으나 노일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촌마을로의 귀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주택의 건축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 마을과 경계를 넘다.

완경사의 부지를 원지형을 그대로 받아 문간채와 안채를 분리하여 나란히 배치하고 정면을 홍천강변을 향하게 축을 설정하므로 아름다운 산아임수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사로의 진입로를 통해 문간채를 지나 안채에 접어들게 하는 위계질서가 우리 건축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느껴진다. 주택은 평지붕의 낮선 매스이지만 역시 주변의 농가들과 같이 배치방식을 통일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원경에서는 텃새처럼 마을에 앉아 있는 모양이지만, 근경에서는 매스의 스케일과 높이에서 오는 과도함은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주택의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주의(Formalism)건축으로 미니멀리즘(Minimalism)매스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간채를 전면에 배치하여 출입기능과 주차공간과 게스트공간의 기능을 갖게 하고,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상부를 2층구조로 설계하였다. 2층의 실내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장대한 풍광을 바라보는 듯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높이에서 오는 마을과의 컨텍스트 문제는 여운을 갖게 한다. 안채 역시 장방형의 도시형주택형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홀집형태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손님방과 안방을 분리하고 주방을 통해 뒷마당으로 연결하는 수법은 거주자의 요구와 생활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장독대는 문간채로 연결되는 담장하부에 놓았다. 장독대위 향아리들이 풍미하는 정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마도 치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본다. 안채 거실에서 담장너머로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은 장독대의 정감과 자연을 담아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자의 의도로 보인다.

셋째, 치유의 공간이다.

비록 기하학적 입면형태로써 주변과의 조화에는 다소 생각을 달리하게 되지만 디테일의 섬세함과 적색어도브마감은 거친 송판노출콘리트와 경사로 콘트리트 포장 등에서 오는 간결미를 따뜻하게 해주고, 주변농가와의 정서적 관계도 큰 부조화가 아니다. 적벽돌마감기법과 여기서 나오는 색상의 은은함은 극히 센스티브하며, 이 마을의 새로운 주택건축에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디테일 곳곳마다 자연과 마을과 조화를 통해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감은 노일리 주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버터모닝>

버터모닝의 외관형태는 미니멀리즘 건축형태를 갖는다. 주변의 버네쿨러 돌담과 농촌주택과 달리 달리 자연의 곡선을 배제하고 기하학적 절제미만을 보인다. 무창구조의 파사드는 매스 좌측상부 1/2높이에서의 1m폭만을 개방했을 뿐 버터모닝의 정면은 모두 닫힌 구조이다. 이러한 닫힘은 열림의 자연과 마을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극을 주기며,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든다.

건축주는 대구에 귀촌하여 빵집을 운영하는 귀촌자이다. 버터모닝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예약하지 않으면 빵을 살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베들레헴(빵굽는 집)이 되었다.

그러나 건축미학에 집중하다보면 건축이 갖는 커뮤니티 성을 이면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버터모닝 건축물의 앞마당 공간을 중정으로 옮겨서 실내에 자연공간을 연출하였는데, 이는 이용객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기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앞마당의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아마도 길가집이라는 통과도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본능적 의도로 해석되는데, 중정은 빵을 사는 사람만이 그 중정마당을 공유할 수 있다. 빵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차의 소동을 맞아야 한다. 그것도 소문난 베커리이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기에 마을이 일시적으로 복적대는 것이다. 뒷마당의 여유공간이라든가 실내중정공간을 양보하여 차라리 앞마당을 확보하여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면 좋았을 것을 생각도 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축가의 의도가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버터모닝의 미니멀리즘형태는 마을의 토속건축들 속에서 결코 모나거나 이단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팔래트의 주조색 가운데 5%이하의 강조색을 칠해보면 매력을 더해줄 수 있다. 마을의 경우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해석된 것이다. 커뮤니티성의 상실로 보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버터모닝은 주차의 애매함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소리없이 이웃과 소통하며 마을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은 강조색이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on

멋진 할아버지집

설계 : 아키텍케이 건축사무소 <이기철>

위치 |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07~9

건축면적 | 164.02m²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727m²

건축면적 | 151.67m²

연면적 | 209.5m²

건폐율 | 20.86%

용적율 | 19.62%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토속적 한국건축과 베이비부머 세대

Vernacular Architecture & Babyboomer

멋진 할아버지집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전원주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베이비부머(1953~1962)세대들은 인생에 걸쳐 양극단의 상황을 경험한 세대들이다. 전후의 빈곤의 시기에서 경제개발의 호황의 시기를 겪었으며, 군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열었고, 토속적 한국문화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랐지만 어느새 세계화 흐름 속에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와 글로벌 한 가치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모두 관통해 존재하는 다층적 경험을 가진 세대이다.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토속적 한국건축이란 무엇일까?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통적 혹은 토속적 한국건축은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한국건축의 원류중 하나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지난 반세기의 짧은 시간 동안 새로이 도입된 서구적 건축역사 한국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그 궤를 함께 하며 한국의 건축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독립된 건축으로 한국건축의 양단에 존재할 뿐이다. 토속적 한국건축이 서구적 건축과 만나 자연스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면 어떤 모습일까?

낯선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한국 토속건축”이라는 단어는 이런 면에서 많이도 닮아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멋진 할아버지집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체성 찾기”와 “한국 토속건축의 현대화 과정 밝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프로젝트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전통건축의 배치와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능과 미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공간들을 정리했다. 전통건축의 형식인 처마와 툇마루를 금속 소재인 골강판과 김해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활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공간으로 풀어냈다.

‘불편하지 않은 시골 촌집’이란 건축주의 표현처럼 토속적 한국건축의 현대화의 작업인 “멋진 할아버지집”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은 삶을 담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자연에 스며들다

Smerge in Nature_Space

멋진 할아버지집은 무척산과 금동산 사이로 열린 시냇가에 걸쳐있다. 자연에 스며들 듯 동화되는 방법으로, 내외부의 시선이 건축을 통해 자연으로 흐른다. 노후의 삶의 장소로서 건축은 자신을 돌아 자연에 비추어보는 틀이 된다.

토속적 공간 & 현대적공간

Vernacular & Modern Space

전통적인 방식의 가변성과 재료들로 구성된 취미공간(취미실)과 현대적인 기능과 미감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간(거실/안방)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겪은 어린시절의 토속문화와 지금 살고있는 현대화된 서구적 공간을 대변한다.

기능적 생활공간

Functional Living Space

전원의 생활 속에서도 도시적 생활패턴이 가능한 주방공간(집속의 집)을 삽입하고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통해 기능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의 생활공간을 구현했다.





배치와 외부공간

Allocation & Outdo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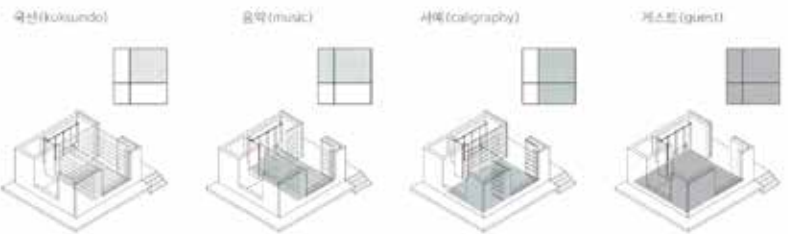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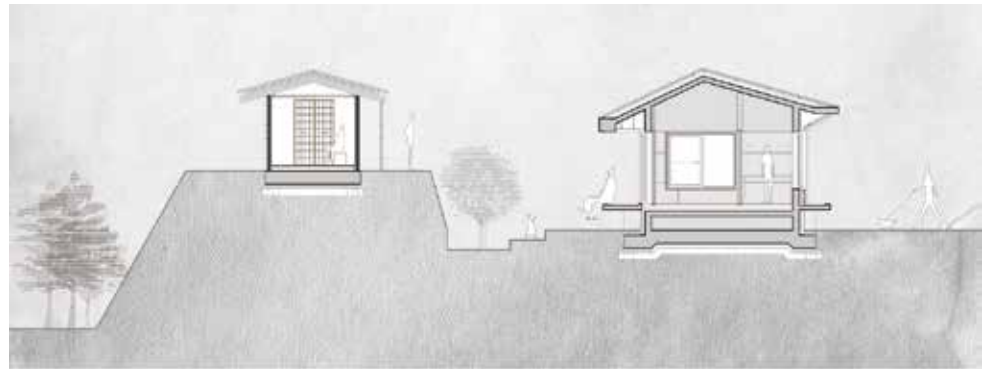
본채인 취미공간과 생활공간의 덩어리와 별채인 명상공간의 덩어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러개의 외부공간이 형성되고 이는 집 내부로 김해의 전원 풍경을 끌어들이는 여유를 만들어 낸다.
또한 외부공간의 위계를 통해 이웃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앞마당 사적인 외부공간으로의 중정을 가지게 된다.

평면도



배치도





가변형 취미공간

Flexible Hobby Space

취미공간 내부는 전통 미단이 창호를 밀고 닫음으로서
 공간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외부로 연계된 툃마루와 외부공간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확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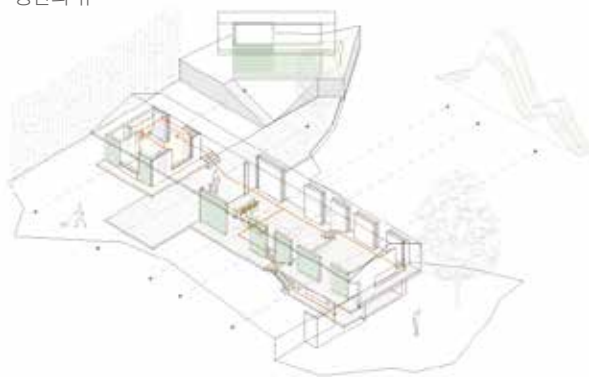
일련의 창과 동선

Sequence Window & Circulation

입면의 높이 만큼 열린 창들을 긴 메스를 따라 일렬로 배치함으로써 김해의 풍경은 내부 공간으로 녹아들고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연속된 풍경의 프레임을 경험할수 있도록 했다.

정면과 배면의 창이 같은치에 놓여져 풍경이 건물을 관통하며 맞창의 효과를 가짐으로 여름철 통풍을 극대화한다.

동선에 따른
공간의 뷰



대나무와 건축

Bamboo & Architecture

전통건축의 서까래는 멋진할아버지집을 통해 단화 대나무로 계승된다. 대나무의 건축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김해의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친환경적 건축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입면 (전통적 요소의 현대화)

Elevation (Modernization of Tradition)

-
전통 건축의 요소인 기와 지붕, 처마, 뒷마루등을
골강판, 노출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재해석하여
토속 건축의 현대화를 고민하였다.



예꽃재 ;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설계 : 건축사무소 아뜰리에 마루<구국현>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용도 | 주택(32가구),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 도서관, 도예실

대지면적 | 21,809.7m²

건축면적 | 3,055.86m²

연면적 | 3,576.01m²

건폐율 | 33.65% 이하

용적율 | 39.02% 이하

구조 | 경량 목구조 / 목조 트러스(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량철골구조(주민공동시설)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

Art & Fun

예꽃재(구 아산 강장지구 전원마을)는 도시민의 농촌 지역 유입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부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전원마을로 기반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으며 주택 설계와 건축은 32가구의 입주예정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약 6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마을

Social Community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며 마을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이루어간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함께 즐기며, 아이들은 '예술이 꽃피는 재미난 마을'의 이름처럼 나무로 둘러 쌓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도예, 풍물, 생태, 요가 등 신나고 행복한 체험들 속에 자라난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속에서 성장하고 갈등을 해결 하며,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은 마을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는 것, 어른도 아이도 모두 함께 놓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골목문화가 살아있는 예꽃재가 될 것이다.

마을과 함께하는 건축가

Architect with a village

현장을 100번 이상 집처럼 다녔던 건축가는 아마도 드문 사례일 것이다. 마을의 커뮤니티센터와 주택 설계에서부터 작은 나무, 꽃 하나까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만들어나갔다. 그런 마을 주민들의 따뜻함과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마을 도서관은 재능기부 설계를 했으며 지금도 그 인연으로 마을과 함께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마을

Eco-friendly Energy

예꽃재는 또한 에너지 관리 공단의 융 복합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체가구와 커뮤니티 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을 에너지 중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에너지 사용을 실천해 가고 있는 친환경적인 마을 이다.

태양광 : 32세대(3w 설비, 주택용 전기사용)

지열 : 32세대(5RT(17.5KW) 설비, 난방 / 온수 활용)

융복합 : 32세대(3w 설비, 주택용 전기사용)

기대효과 : (전기요금 및 난방비용 절감, 환경보전)







가로집

설계 : 이화여자대학교<이윤희>,
(주)이우건축사무소<조종우>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2번길 60-14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898m²
 건축면적 | 130.80m²
 연면적 | 127.40m²
 건폐율 | 14.56% 이하
 용적율 | 14.18% 이하
 규모 | 지상 1층
 구조 | 경량 목구조

자연과 조우하기

Run into nature

화전리 가로(horizontal) 집은 번잡한 용문면 중심부에서 4km 벗어난 주읍 산의 동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는 남쪽으로는 산 아래 원경으로 펼쳐진 화전리 마을을 굽어보고 있고 참나무 군락의 산으로 에워 쌓여 있다. 조용한 농촌생활을 원했던 건축주에게는 최적의 대지이다. 대지에서 10km 반경으로 북쪽으로는 해발1157미터의 용문산이 남쪽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300미터 이상 고도의 산들로 에워 쌓여 있어서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곳이다. 기존이 산세와 대지가 정갈한 본채와 작고 소박한 창고 하나를 더해 놓는다. 집과 창고는 참나무 숲에 의지하여 풍경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줄이고 비우기

Reduce and Empty

2층 다락방을 포함했던 45평 규모의 초기 설계안은 꼭 필요한 공간에 집중하여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한 후 과감히 2층 다락방을 삭제하고 단층으로 변경하였다. 긴 장방형의 본채는 안방, 중앙거실 그리고 손님방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 두 개의 현관 공간을 만들어 시각적, 물리적으로 영역을 분리하였다. 두 개의 현관과 주방에서 북쪽 뒷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3개의 외부 출입문을 통해 3개의 영역에서 편하고 쉽게 내외부 출입할 수 있다. 건축과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사이즈와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되는 목재와 벽돌로 주 재료가 정해졌다. 절제된 규모와 설계를 위해 과함을 피하고 주리고 비워낸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Back to basic

목재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재료로 주택 역사상 가장 많이 오래되고 익숙한 재료이며, 벽돌은 19세기말 콘크리트와 철골이라는 강력한 건축용 구조재료가 이용되기 전까지 가장 보편화되어 주택에 사용되어왔다. 화전리 가로 집에는 목재와 함께 벽돌을 사용하고 벽돌 축조시 사용되는 기본 구축방식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심미적인 관점에서의 디테일 활용보다는 근본적인 구축의 합리성을 실질적인 편한 디테일과 구축법을 사용한다.

열린 경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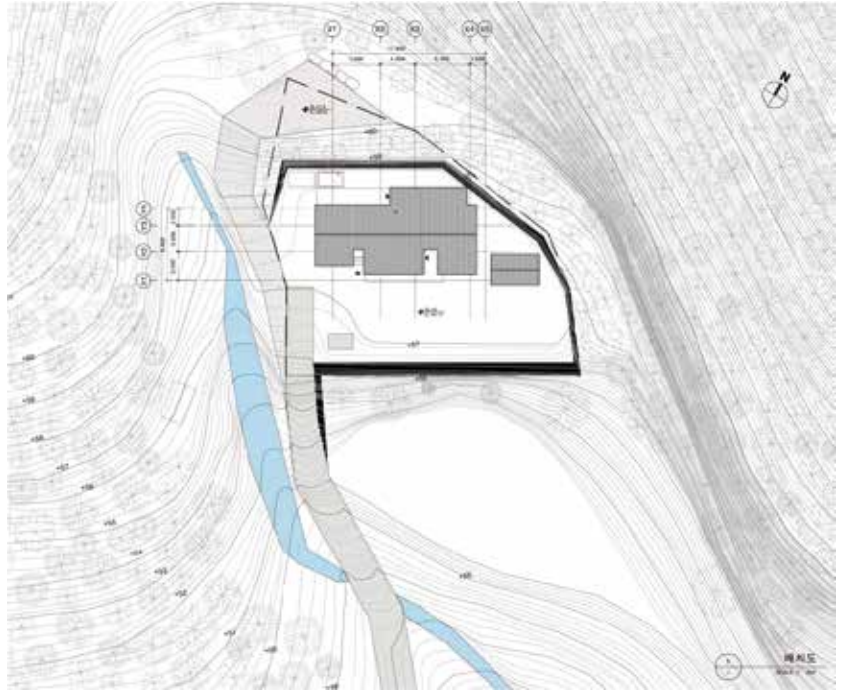
Open boundary

거실, 다실, 주방, 식사공간을 아우르는 중앙거실에는 박공지붕 용마루(ridge)와 평행하게 8미터 길이의 글루램(130x300) 보와 4미터 높이의 기둥을 설치했다. 중앙 기둥과 보는 구조적인 역할뿐 아니라 열린공간 안에서 또 다른 세분화된 공간을 만들어준다. 가로와 세로의 보와 기둥은 내부 벽돌벽면, 불박이장 가구 벽면 그리고 자작나무 천장에 연결되며 건축공간의 기본 선, 면, 볼륨으로 전이되고 확장된다.

담백하게 연결하기

Light connect

백색 지당도장을 입힌 자작나무 천장재, 무광 스완 화이트 색의 벽체 친환경 페인트, 그리고 백참나무 원목 나무의 색상과 질감이 합쳐져 안정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전제를 과하게 밝히는 천장 매입형 조명을 최소화 하고 건축벽면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자체제작한 LED 벽부등과 펜던트등은 부유의 가구가 아닌 작은 스케일의 건축요소로 결합시킨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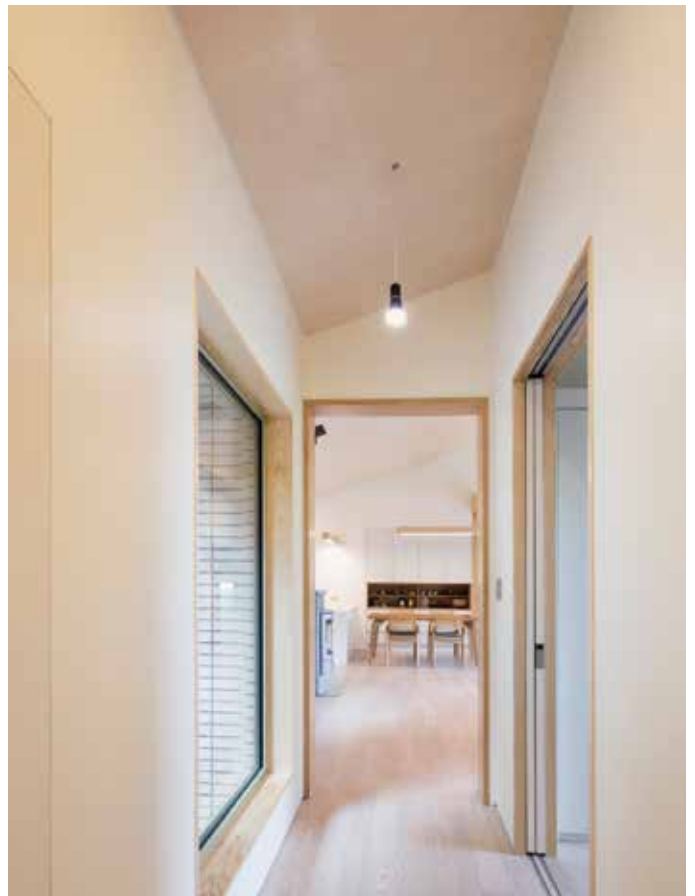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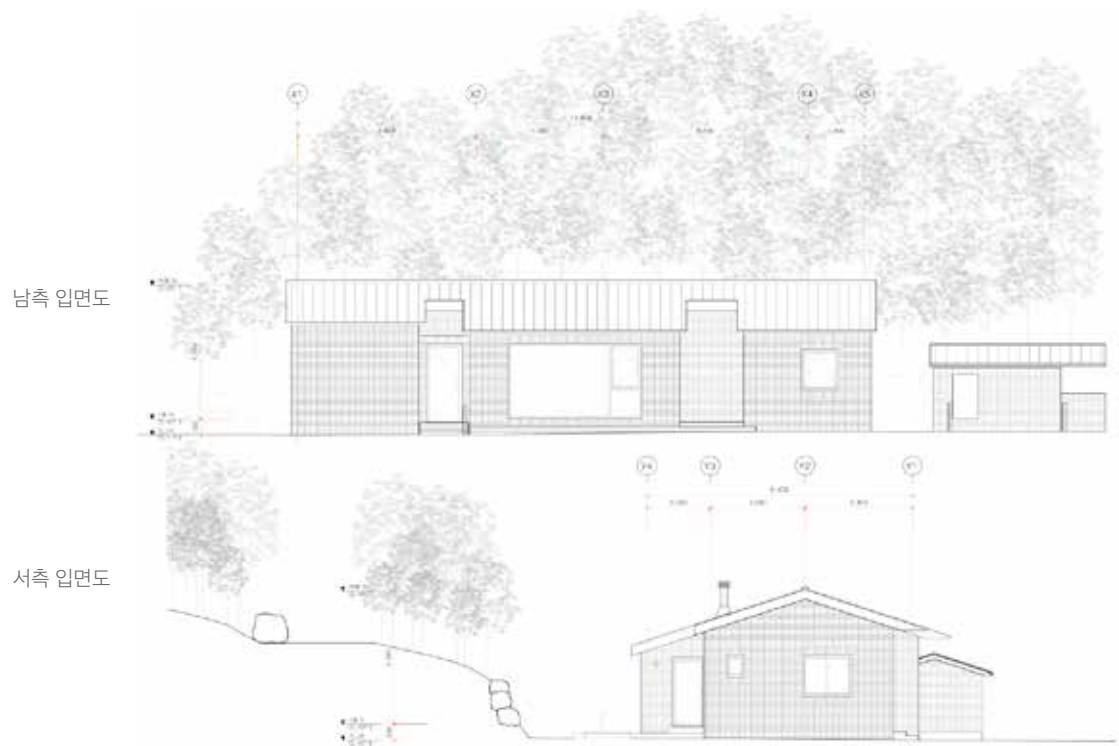




평면도

1. 손님방
2. 현관
3. 거실
4. 주방
5. 식당
6. 다용도실
7. 안방
8. 창고
9. 정면데크
10. 후면데크





해양생태체험관

설계 : 지요건축사무소<김세진>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214-12외 4필지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 3,462.00m²

건축면적 | 770.94m²

연면적 | 1,305.14m²

건폐율 | 22.27% 이하

용적율 | 37.70% 이하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바다

Sea

완도의 바다는 인근 해양 생태의 시원이자, 청해진 존재의 이유이다. 방파제 끝에서 흔히 보는, 있는 그대로의 바다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관의 전시 사이사이에 놓여있는 바다와의 조우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이 된다.

설계개념

Concept

체험관 매스의 채움과 비움은 조형 의지라기보다는 바다와 역사 유적으로 대표되는 고유한 장소에 프로그램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담은 매스를 나누고 간격을 벌려서 그 틈새로 바다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풍경에는 물론 사적 308호로 지정된 청해진 유적의 장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체험관 외부의 바다와 장도는 체험프로그램의 일부가 된다. 체험관은 천만 도시이건, 심산유곡이건 장소의 특성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반적인 전시시설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 다양한 해양생태 전시 및 체험을 위해 체험실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경관적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바다와 장도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배치원칙

Arrangement rule

해양생태체험관은 관광정보센터와 방파제에서 이격된 거리가 비슷하도록 하고 두 건물 사이에 주차시설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집합군으로 구성한다. 대평들에서 시작하여 중구들에 이르는 영역을 크게 해양생태체험관 영역, 장보고 공원 영역, 장보고 기념관 영역의 3개로 구분하여 해안을 따라 공시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전시체험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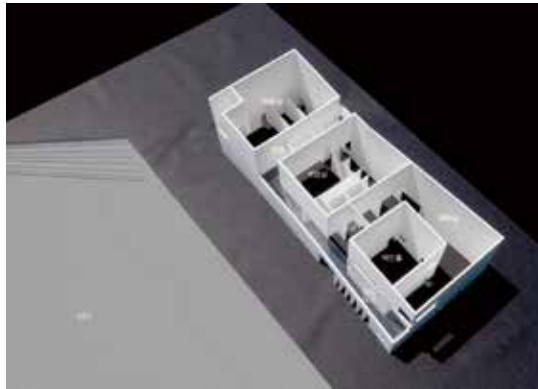
체험 동선은 전체 건물의 가운데 부분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입구홀 우측의 메인 홀에 들어서면원형 천창에서 떨어지는 빛을 배경으로 천장고가 9미터에 달하는 수직공간을 만나게 된다. 관람객은 기획전시실을 둘러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위치한 청해진 유적 전시실로 이동하게 된다. 해양생태체험관 2층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담은 3개의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각 체험실에서해양 생태의 깊은 이해와 체험을 하게 된다. 바다의 풍경은 체험실1 내부에서도 보이며 체험실2, 3 사이에서 출입 가능한 장도데크에서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장도데크에서는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역사유적인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이 한눈에 펼쳐진다. 1층에 배치된 체험실4를 마지막으로 내부 체험은 종료되며, 체험의 마지막 장면은 약 11미터 높이의 벽체사이로 펼쳐지는 완도의 바다 그 자체이다.

재료

Materials

해양생태체험관의 주된 외장 재료는 벽돌이다. 벽돌은 바다나 역사 유적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다. 바다의 물입자는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변화무쌍함을 지닌다. 벽돌 역시 시간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데, 바다에 면한 동측의 경우 새벽녘에는 붉은 빛을 띠다가 날이 밝아올수록 주광색으로 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어두워져 해질녘에는 흑색으로변화한다. 청해진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벽 또는 고대(高臺)의 돌도 시간의 쉼을 지니고 쌓여졌다. 벽돌은 하나로는얼핏 약해 보이지만 집합을 이룰 때 강건하며, 각자가 가치가 있기에 모아지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선사한다. 체험실 덩어리를 구성하는 내향적인 벽은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별다른 꾸밈없이계획한다. 체험실 사이사이에서 장도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적 장치로 투명유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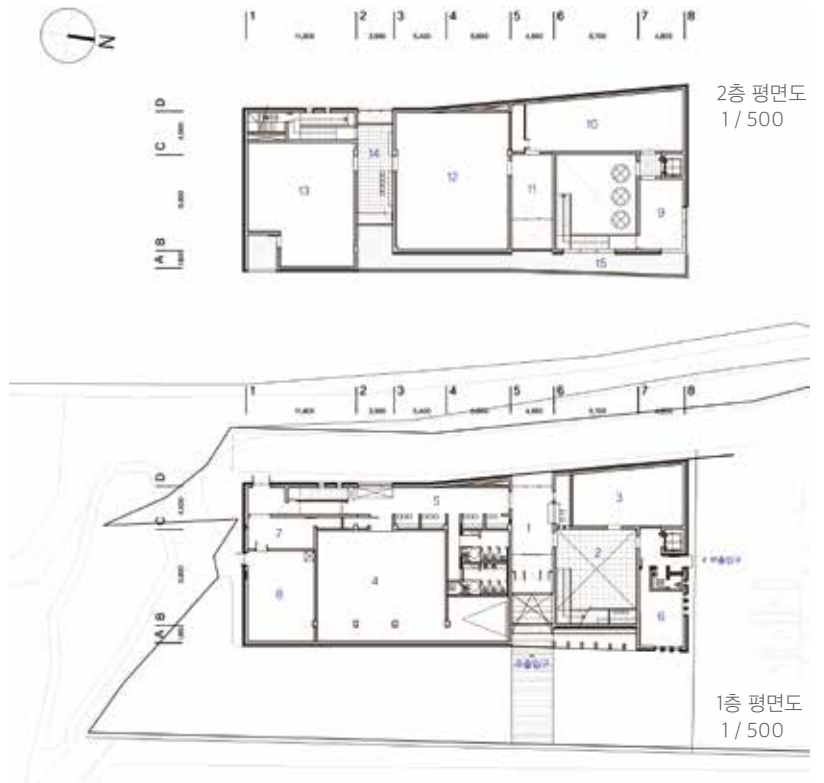


해양생태체험관은
 바다와 역사 유적으로 압축되는 장소의 특성을 드러내는 틀을 제시하는 건축이며,
 그 안에 체험시설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평면도

1. 입구홀
2. 메인홀
3. 기획전시실
4. 체험실 4
5. 출구갤러리
6. 운영사무실
7. 수장고
8. 설비공간
9. 청해진 유적 전시실
10. 체험실 1
11. 테마전시실
12. 체험실 2
13. 체험실 3
14. 휴게공간
15. 장도데크



버터모닝

설계 : (주)아뜰리에일일건축사무소<박현모>

위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798-3번지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

대지면적 | 339.00m²

건축면적 | 141.82m²

조경면적 | 42.9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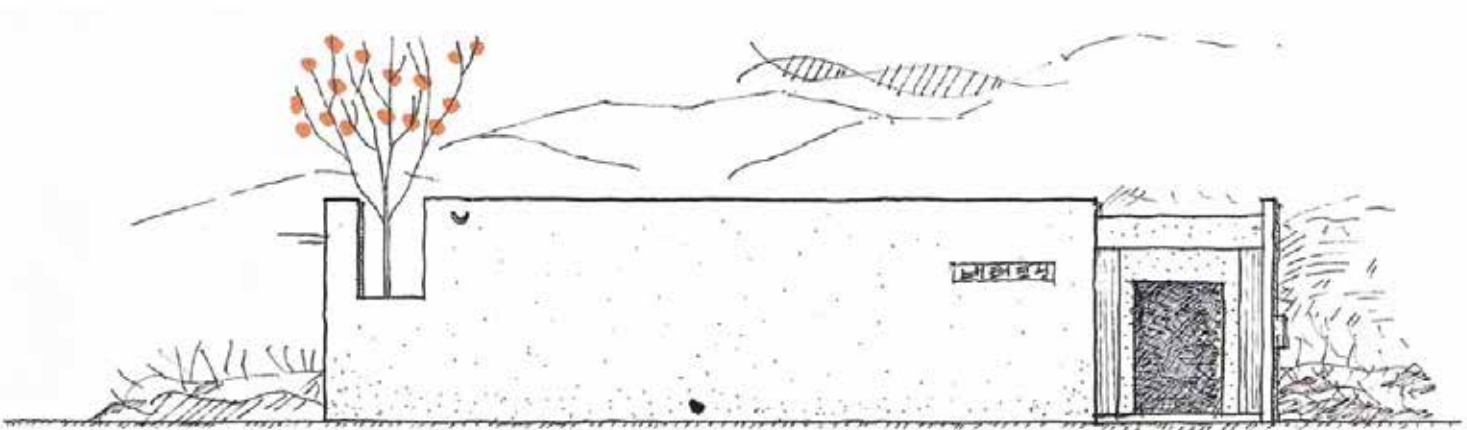
연면적 | 141.82m²

건폐율 | 41.83% 이하

용적율 | 41.83% 이하

규모 |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어느날

인생의 절반이상을 빵만드는 일을 해온 중년의 신사분이

시골 작은마을에 빵가게 설계를 부탁하러 왔다.

시골 마을과 빵가게...?

“슈틀렌 갈레트 바게트 크루아상”

좋은 사람들과 맛난 빵을 먹는 행복을 부르는 빵가게

새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는 비밀가득한 공간

“블랑제리 구레바야시” 베이커리 같은 휴식처 같은 공간...

그럼시골 빵가게를 상상해본다.





배치도

1. 메인 마당
2. 옥외공간
3. 휴게공간
4. 중정
5. 주차공간



평면도

1. 테이블공간
2. 좌식공간
3. 주방
4. 중정
5. 창고
6. 화장실(여)
7. 화장실(남)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on

계획 부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방현을 봄

서창호, 임창현, 홍윤지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전원일기

나지혜, 유지민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Cultivate the Future ;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

김지수, 전준호, 이우평

특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특별상** 임실군수상

도란도란

김지희, 정준영, 김지윤

특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들락(樂)날락(樂)

강효진, 김찬렬, 백다혜

특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食口

서미주, 김동영

특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기록, 기억 그리고 미래의 터

이도형, 이봉근, 배강우

입선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구름공간 _ 최재혁, 정기담

나무; 담길 _ 안성호, 이지

더불어 가꾼다 _ 오경하, 정훈재

돌; 담 이야기 _ 김지현

돌담애 <愛> _ 전준수

동거동락 _ 조태현, 강희강, 김진우

두근두근 다시뛰는 방현마을 _ 장미나라

連; 잇닿다 _ 안영연

마루에 올라앉아 _ 양승원, 전주환, 박성우

마중: 일상성의 회복 _ 김대경, 민성홍, 김병성

만남의 뿌리 속으로 스며들다 _ 신채원, 김기덕, 송근봉

메디오 디아 _ 김종희, 김형탁

물레; _ 홍찬호, 강태환, 정윤환

물레방앗간 <甬> 담소 _ 신초롱, 김대겸

방현's 로컬커넥터 <local connector> _ 유도안

방현리 나무그늘 아래에서 _ 박준현, 정승호, 권근애

방현마을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_ 노우택, 김도연, 최동익

방현마을 타임라인 _ 조홍래, 이효인

방현마을에 날아든 나비 _ 김재일, 손동철

방현마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_ 노광래, 김민철, 김령은

방현에 여족도 안와봤소? _ 나지연, 강대규, 김지원

방현의 온도 _ 권봉경, 김지민, 이주향

살만한 마을 _ 이택수, 최현진

새침로 _ 김원재, 김태영, 원성민

세외 도원 <世外桃源> _ 홍명성

순망치한; 새로운 인연을 쌓는 공간의 연속 _ 김나현

심, 심, 하다 _ 조은영, 공병국

연정지혜 _ 이상희, 장준혁, 전재석

우리는 시끄러운 마을에 산다 _ 김효수, 김수현, 유병재

임실榭畵 - 떠들썩한방 _ 임지선, 김수경

잇다 farm _ 이다솔

자연에 스며들다 _ 이영찬, 유지민, 김상연

접촉: 사람, 나무, 마을 _ 이경훈, 윤진환

제3의 인생 _ 전영규, 정동욱

지속가능한 여정 _ 이상준, 이경훈

후稯·편農·상農 공동체 _ 박종하

Agri - community _ 홍승표

change = make overlap _ 김지수, 지희영

co - growing naturally _ 백인엽, 김정서, 박소연

Inter - Active _ 김새미, 이혜나

P. AS. S = 나이가다 _ 문원식, 허다운

共Zone <공존> _ 김수상, 정재호

愛吾園 <내 마을을 사랑한다> _ 최지은, 강민지

공모요강

공모주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

대 상 지

방현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방현길 113- 1 일원)

출품자격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구성)

* 개인 또는 팀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팀 구성 시 대표자 지정해야함

일 정

구 분	일 정	주요 사항
참가신청 접수	6월19일(월)~7월14일(금)	홈페이지 접수
1차 작품 접수	7월24일(월)~7월26일(수)	참가 신청자(팀)
1차 심사	7월 31일(월)	
2차 작품 접수	8월28일(월)~8월30일(수) 18:00까지	1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2차 심사	9월 6일(수)	
3차 작품 접수	9월 11일(월)	2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3차 심사	9월 11일(월)	
수상작 발표	9월 12일(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전시	10월26일(목)~11월1일(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
시상	전시기간 중 1일	

주요출품규정

1차 작품 : 작품설명서 (A3, 2매 내외)

2차 작품 : 패널(800mm × 500mm, 3매), 모형 (800mm × 800mm)

3차 작품 : 발표자료 (ppt슬라이드 20매 내외)

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작품설명서 및 패널 심사 (작품신청자(팀)를 대상으로 입선작 이상 작품 선정)

2차 심사 | 패널 및 작품모형 심사 (1차 심사 통과자(팀)를 대상으로 특별상 이상 작품 선정)

3차 심사 | PT발표 심사 (특별상 이상 훈격을 최종 결정)

심사위원장 :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심사위원 : 고영학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박창섭 (한국농어촌공사 대표건축사)

김두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이호석 (이한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삼영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시상

구분	작품수	상장 (설계자)	상금
대상	1 작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 만원
우수상	2 작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 만원
장려상	4 작품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 만원
특별상	1 작품	임실군수상	기념품
입선	43작품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세부설계지침

—

공모주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

>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농촌 현실 속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계획 수립

농촌사회 현실과 공동체 활성화 :

농촌 지역의 고령자와 독거노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낙후된 주택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춥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많으며, 불규칙한 식사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열악한 위생 여건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분들의 고독감, 우울증이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고령 농가가 마주하고 있는 힘든 현실이다.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기거하는 노인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 고독감, 소일거리 부족 등의 농촌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

고령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노인의 일상생활, 휴식, 커뮤니케이션,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가지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주거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4차 산업 혁명 :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연동돼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신속하게 알려줘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 등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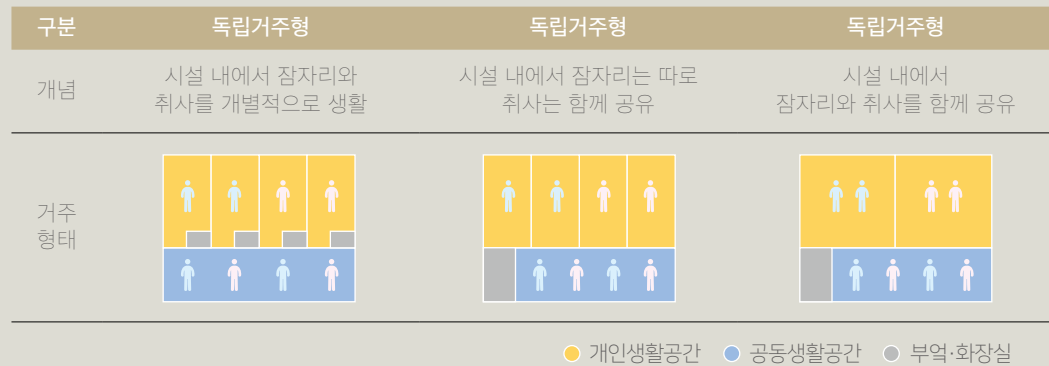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나타난 지능 정보기술은 우리 건축과 농촌에도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유형

공동생활홈 :

- >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과 같은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시설 또는 주택
- > 거주 형태에 따라 공동거주형, 독립침실형, 독립거주형으로 구분되며 사생활 보호, 비용대비 수혜자 수, 건축비용 등에서 유형별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여건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택

<거주 형태에 따른 공동생활홈 유형>



공동급식시설 :

- >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에,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설비를 갖추어 다수의 지역 거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설
- > 마을공동체가 시설을 소유하고 식재료 조달, 조리, 식사 제공도 마을 공동체가 운영

작은목욕탕 :

- >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욕탕, 샤워기, 탈의실 등의 설비를 마련하여 소규모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 또는 지역의 조직·단체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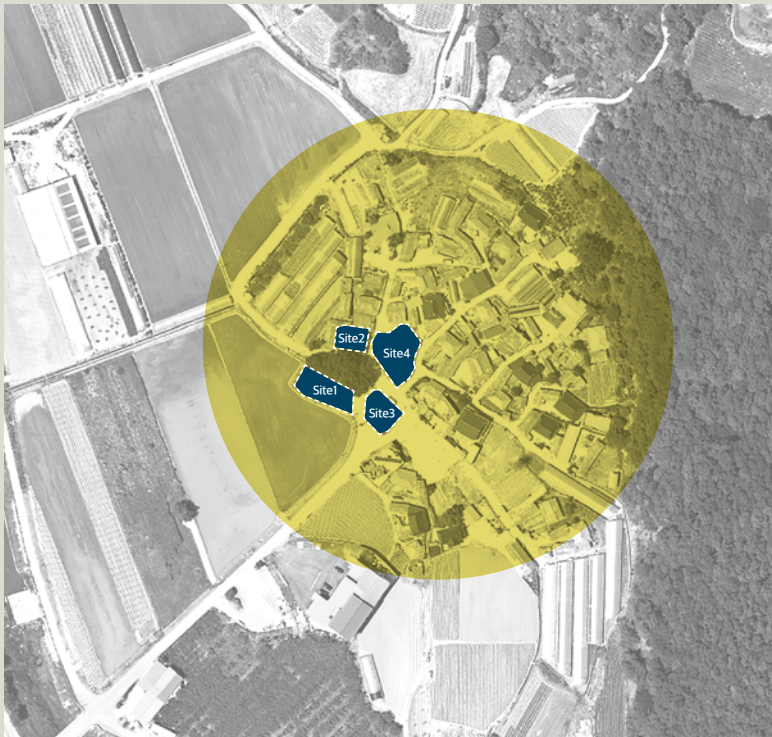
공모대상지 정보

대상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현마을

해당지번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234, 212-1, 232-4, 227-1, 231-10, 231-31, 229-1번지

총 부지면적 : 1,061m²

방현마을은 사업대상 지역은 임실군 북부권에 위치하며, 섬진강의 청정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부터 소작농 중심의 낙후 취락지로 주민 삶의 질은 매우 취약한 마을임



임실군 관촌면 방현마을 일대 및 공모대상 부지



Site (서측에서 바라본 방현마을)

Site

대상부지 면적 개요 :

Site 1_ 경로당

방현리 234, 212-1번지

부지면적 | 416m²

건축면적 | 88.56m²

건축규모 | 1층

구조방식 | 조적조



Site 1_ 모정 1

방현리 234, 212-1번지

부지면적 | 416m²

건축면적 | 17.64m²

건축규모 | 1층

구조방식 | 목구조



Site 2_ (구)마을회관

방현리 232-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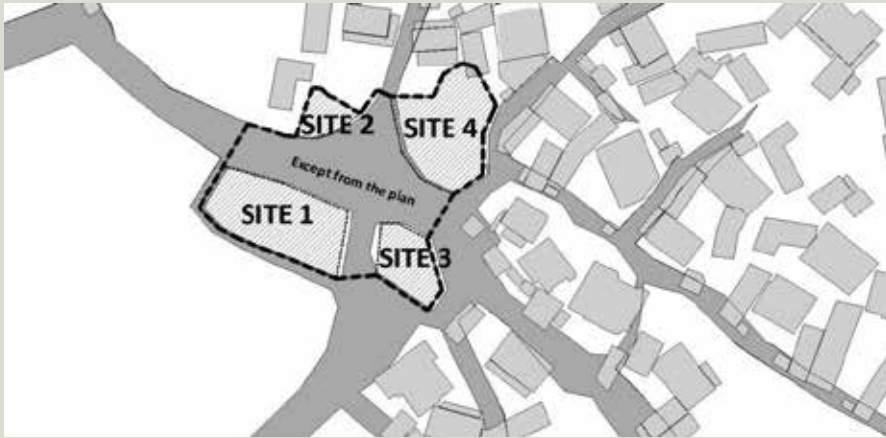
부지면적 | 85m²

건축면적 | 50.60m²

건축규모 | 1층

구조방식 | 블럭조





Site (1_ 경로당, 모정1 / 2_ (구)마을회관 / 3_ 모정2 / 4_ 빈집)

Site 3_모정 2

방현리 227-1번지

부지면적 | 168m²

건축면적 | 31.68m²

건축규모 | 1층

구조방식 | 목구조



Site 4_빈집

방현리 231-10, 231-31,
229-1번지

부지면적 : 392m²



공모대상마을 현황

인적현황

마을의 인구 및 가구 :

전체 가구수는 32호 (빈집제외)이며, 농가 25가구, 비농가 7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농가 대부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임

연령별 인구 :

방현마을의 연령별 인구는 65세이상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최근 젊은 귀촌가구 (2가구/8명)로 인해 19세 미만 인구가 8%를 차지함

가구별 세대원 현황 :

저소득층(3호), 독거노인(9호), 장애인 가구수(5호)가 전체가구 중 53%를 차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주업종 현황 :

농업 78% (25호 / 32호) 축산업 9% (3호 / 32호) 비농업 13% (4호 / 32호)

마을 인적자원 현황 :

인구규모가 적은마을이나 목공예가, 전통 돌담 석축공, 방과후 지도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자격분야	보유자 현황		활용방안
	성명	연령	
목공예가	주석준	87	공동화단 장승 설치
	최진수	59	
전통 돌담 석축공	한명오	63	마을 돌담 정비
	문양기	76	
방과후 지도사	김도희	39	노인 및 어린이 교육

주택현황

주택 노후도 현황 :

- >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 : 79% (30호 / 전체 38호, 빈집포함)
- > 대부분이 노후화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



지붕재 현황 :

- > 슬레이트 주택비율 : 74% (28호 / 전체38호, 빈집포함)
- > 주택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공· 폐가 현황 :

- > 공· 폐가 주택비율 : 16% (6호 / 전체 38호, 빈집포함)
- > 마을의 환경 개선과 주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 폐가 철거가 시급한 실정



난방 및 온수, 취사용 에너지 사용현황 :

구분	계	주택 사용 에너지 현황					
		전기	LPG	유류	연탄	신재생에너지	기타
가구수	32	-	-	32	-	-	-

마을 내 주택 군집도 :

100% (38호/전체 38호)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현황

상하수도 보급현황 :

- > 상수도 보급률 : 81% (광역및지방상수도사용 26호 / 전체32호, 빈집제외)
- > 하수도 보급률 : 81% (26호 / 전체 32호, 빈집 제외)

주민 복지 및 편의 시설현황 :

- 마을 경로당은 현재 9명의 독거노인이 공동생활홈으로 생활하고 있음
- ※ 경로당과 모정을 제외한 별도의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은 없음(구 마을회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층수	구조	준공년도	운영내용
경로당	관촌방현길 113-1	85.91	1	시멘트 블록 구조	1996	마을운영
모정	관촌방현길 227-1	32.16	1	목구조	2007	

마을 담장현황 :

- 담장 대부분은 과거 주민들이 스스로 쌓은 돌담장이며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쌓았던 시멘트블록 담장들이 일부 노후되고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량경관 조성

구분	연장 (m)	재료
마을 내 담장 현황	300	돌담장
	180	시멘트 블록



돌담장 현황



시멘트담장 현황

심사평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기를 잃은 마을, 비어있거나 불편하고 낡은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바꾸면 그곳이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까? 마을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제안은,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으나, 두 가지, 한편은 낡은 공공시설을 거의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안을 전개한 것과 다른 한편은 공공시설 대부분은 보존하면서 일부는 고치고 일부는 덧붙이는 방향으로 전개한 것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전자의 특징은 건축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서 조형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았고 후자는 건축적인 개입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특징이 없어 보이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7개의 작품을 뽑기까지 진지하게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다.

토론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심사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마을의 공간구조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주어진 대지의 공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제안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부합하는가? 제시한 시설이 꼭 필요한 용도인지, 규모가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너무 크지는 않은지 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

셋째, 설계안이 마을의 경관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건축 조형적으로 눈에 띄게 우수하다 해도 그것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택되지 않았다. 조형적으로 잘 구성되면서도 주변과 잘 어울리는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었고, 소박한 제안이라도 현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면 더 높이 평가 되었다.

<방향을 봄>

마을 전체의 공간구조를 이해하고, 주차장 설치, 돌담연장 등 소소한 제안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경관을 치유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 경로당과 모정을 대수선하여 재활용하고 공공목욕탕도 최소한의 크기로 제안하는 등 마을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이라는 점. 특히, 네 개의 대지를 가로지르는 사거리 차도를 자동차를 우회시킴으로써 하나의 보행자 마당으로 연결하여 통합시킨 점.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에 보행자를 위한 중심공간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네 개의 시설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활용성을 높인 점이 다른 어느 팀보다 돋보였다.

<전원일기>

활용도가 낮은 마을의 공공시설을 용도를 재설정하여 공간 활용도를 증가시키겠다는 제안으로 기존 경로당, 모정1, 2, 기존의 마을회관까지 주어진 모든 시설을 있는 그대로 재활용 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용도에 잘 부합되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하 목욕탕이 마을의 규모에 비해 너무 넓고 외부 공공시설들이 여전히 사거리에 의해 나뉘어 있어 건물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

방현마을의 현실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열악한 의료복지, 여가복지, 인근 마을과 떨어진 물리적 거리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부속시설을 넣는 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현실적인 건축적 해결을 제안했다는 점. 특히, 설계안이 주변 마을 경관과도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존 경로당 앞 모정에 노천탕을 배치하면서 울타리를 치는 등 마을 중심 마당쪽으로 닫힌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네 개의 건물간의 소통이 어렵게 된점이 아쉬웠다.

<도란도란>

네 개의 공공시설 앞 사거리를 보행자 공간으로 광장을 만들고 각 시설 별로 앞마당, 사이마당, 뒷마당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생성하면서 각 공간마다 성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서 공간적 인지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특별상을 부여한 이유) 건축설계도 매우 솜씨있게 잘 되었으나, 2층 목욕탕과 큰 규모의 마을회관 등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다소 아쉬운 작품이다.

<기록, 기억 그리고 미래의 터>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에 입구성을 부여하고, 길을 잇고,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터로 만드는 등 주민들의 삶터 전반을 개선하는 소소한 제안을 포함하여, 경로당, 기존 마을회관, 모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건축적으로 우수한 제안이라고 평가함. 다만, 기존 경로당 앞에 2층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협소한 기존 마을회관에 목욕탕을 넣는다든지 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식구>

농촌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방현마을 2030 프로젝트'를 제안할 정도로 마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노력과 체험관,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의 모듈화된 설계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인구유입만이 해결책이라고 가정한 제안은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들락날락>

기존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홈, 빈 마을회관을 활용한 작은 영화관, 모정에 찻집방을 덧붙인 휴게 공간 등은 매우 훌륭한 제안이었으나, 마을의 규모에 비해 너무나 큰, 세탁실, 건강증진, 목욕탕이 있는 원형 복합건물이 마을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제안이어서 아쉬웠다.

고영학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단장)

한국농촌건축대전 계획부문을 농촌지역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해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7년도 공모주제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농촌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현마을 대상지로 추진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참가신청 117팀 중 68팀이 작품을 제출하여 1차 심사위원회에서 58팀이 선정되었고, 2차 심사에서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한 50팀 중 7팀을 본상작품으로 선정하였으며, 3차 심사는 출품 발표심사로 대상1, 우수상2, 장려상4 선정(특별상 1점 동시 수상)하였다.

심사의 중점사항은 주변환경 분석의 적절성, 설계개념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배치계획,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및 색상, 농촌고령자를 고려한 설계안, 농촌공동체(마을, 조직)와의 관계 등 독창적이면서도 시공 가능한 구조,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접목한 건축계획 등을 심사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고령자를 고려한 설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설계 응모자들이 공모대상지역인 방현마을에 대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하고 기존 농촌주택과 마을전체 경관조화, 주민의료 복지 등을 반영한 설계안을 중점사항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작품이 참신하고 독창적이었으며, 특히 입상작품들은 마을주민과 직접대화를 통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좋은 수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였다.

<방현을 봄>

마을을 상징하는 장승 설치, 빈집 리모델링, 돌담정비와 마을 공동생활함에 열린거실 설치가 특징이 있었으며, 산책로 정비, 주차장 조성,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나눔터와 영화관 배치, 젊은 귀농 귀촌인들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및 놀이 공간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여 활기가 넘치는 방현마을을 구상하였음.

<전원일기>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숙소와 게스트 하우스로 이용, 모정에 방현마켓을 설계하고, 28가구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교체 등 마을현황을 분석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건물의 용도를 재설정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며, 각 건물을 재활용하여 경관의 이질감도 최소화 하였음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

인근마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목욕탕 격일제 이용, 2층의 황토후계실 설계가 좋았으며, 돌담이용, 적벽돌, 목재 등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을 설계하였음

<식구>

빈터를 활용한 임대하우스, 귀농촉진, 유리온실 설치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숙소는 복층, 부부침대, 가족형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나 목욕탕이 1개소로 남녀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등 건축에 대한 세부 설계 설명이 다소 미흡

<기록, 기억 그리고 미래의 터>

아치형 마을입구 강조, 빈집터 주차장 활용, 족욕, 체험장, 우물터 등 마을 전체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인방범 시스템을 통한 치안문제 예방 등이 돋보였으며, 마을회관 교육공간이 2층 건물로 고령자 이동이 다소 불편함

<도란도란>

신축 마을회관에 공동식당, 주거공간, 교육공간, 구 마을회관은 공방, 작업실, 모정은 공동홈, 목욕탕, 빨래터, 카페 등 마을주민을 위하여 다양하게 구성 하였음. 건물신축이 많아 다소 분산되어 있음

<들락날락>

목욕탕, 황토방, 작은 영화관, 공동홈, 찜질방 등 다양하게 구상하는 등 마을에 신선함과 활기를 주고자 함. 목욕탕과 휴게공간을 특성있게 설계하였으나 규모가 너무 크고, 건축형태가 원형으로 마을주택과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음. 농촌주택에서 볼 수 있는 장독대가 없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박창섭 (한국농어촌공사 대표건축사)

건축계획대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주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마을을 둘러보며 어떻게 이 복잡한 주제를 연결하고 마을에 활력을 주는 건축물로 개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떠오르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골에서의 삶이 낙후하고 뒤쳐진 것으로 여겨지는 요즘 세상에서 이 건축계획대전이 그래도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3차 심사에 올라온 작품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고민이 곳곳에 남아 있어 보기 좋았고 아직 학생이라 다소 무모해 보이는 설계안들도 재미있게 다가왔다.

대상을 수상한 “방현을 봄”은 주어진 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을 전체를 살피며 이 마을에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흔적이 보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장소성을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마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 한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가 마을의 기존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 점이 좋았다.

우수상을 받은 “전원일기”는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한 모습과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을 고심한 흔적이 보여 좋았다. 다만 노인분들이 대다수인 농촌마을에 지하를 활용한 목욕탕 계획과 큰 건축물의 규모는 농촌 현실과 이질적인 접근방식이어서 다소 아쉬웠다.

또 다른 우수상을 수상한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는 다소 실험적인 접근 방법으로 마을을 재해석하였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적절한 건축물의 규모와 유기적인 동선 그리고 목욕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노천탕을 도입하여 마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조성한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라 참신했으나 노천탕의 위치가 마을 초입이라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했다는 것이 마을을 다소 답답한 공간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선을 수상한 작품들과 입선을 수상한 모든 참가자들도 최선을 다하여 마을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서 아쉽겠지만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고 참가한 모든 팀이 소외되어 가는 농촌에 지금 가졌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기를 바라며 심사평을 마치려 한다.

—

이호석 (이한건축사사무소 대표)

올해 농촌건축대전 계획건축부문은 임실군 관촌면 방현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 정자, 빈집이 있는 대상지 4곳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 삶의 질 향상을 꾀할 농촌고령자공동이용시설과 마을회관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공모였다.

설계개념과 그 개념에 따른 표현의 완성도, 기존 시설과 대상지 입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나 애정 있는 시각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았다.

2차까지 제출된 작품들 대부분이 직접 마을을 답사하고 설문조사를 하여 마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었던 점은 흐뭇한 일이었다.

대상을 받은 '방현의 봄'은 전체 마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대상지 4곳과 대상지 주변외부 가로를 아울러 공간화하는 좋은 제안이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제스처를 자제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통해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대상지를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계획하였다.

우수상 '전원일기'는 공동생활홈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수준 높은 표현력이 돋보였다. site4에 위치한 공동급식소와 목욕탕 볼륨의 과도함이 아쉬움이다.

특별상 '도란도란'은 건물 외관의 이질적인 디자인이 많이 지적되었으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포착하고 그 이야기들을 담아낼 여러 마당들을 친숙한 단어로 설정하고 있는 풀이과정이 좋았다.

농촌건축대전이 더욱 발전하여 농촌 지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활발한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최삼영 (가와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2017년 농촌건축대전의 주제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일부 대지에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 제안이었다. 참가자들은 방현리의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치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제안을 밀도 있게 정리하고 판넬과 모형을 통해 표현하였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기존의 낙후되어 방치된 시설을 어떻게 원형을 보존하며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계획 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기존시설의 상태와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면 신축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였다.

임실군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가능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안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이용의 현실성보다 이상적 제안에 초점을 두다보니 과도한 계획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번 공모는 농촌지역의 공간적 활용 측면과 기존거주자 귀농, 귀촌 자 그리고 노인문제의 대안 등으로 농촌이라는 정주 특성과 함께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기에 개념적 접근만으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지역의 요구와 변화를 면밀히 살펴서 경제성을 고려한 치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농촌의 현실과 이상의 밸런스를 잘 찾은 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참여자들에게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 부여는 족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안이 보여주는 아쉬움은 기존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던 여백의 미를 잃어가고 기능으로 채우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목욕탕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모든 참여자의 초점이 되었으나 사용자만 고려되고 운영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고민해야 할 분야가 다양한 공모인지라 초점이 분산되어 산만해 보이기도 했지만 현실적 대안 찾기에 고심한 흔적들은 볼 수 있었다.

대상작인 “방현을 봄”은 기존 도로를 조절하여 마을을 통합하는 마당제안으로 신선했으며 단아한 조형미는 기존 질서에 끼워 넣기에 적절해 보였다.

우수작 “방현리 미래를 개척하다” 안은 농촌 마을 개선의 프로그램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제안이 우수했으며 농촌 노인 주거의 해결과 실행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발표자들의 발표 현장은 전달이 명쾌했고 신선한 매력이었다. 우수작 “전원일기”는 표현과 내용 모두 우수했으나 목욕시설의 현실적 사용과 관리에는 의구심이 들었던 안으로 아쉬움을 남긴 수작이었다.

거의 심사위원 일치로 뽑힌 대상 및 우수상 특선의 작품들과 입상작들은 예년보다 진일보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농촌 취락 만들기는 어느 도시의 대규모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프로젝트다. 규모는 작으나 전국 곳곳의 풍경을 책임질 건축물로서 한국적 건축정서를 대변할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적인 지역성과 조형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축인으로 성장할 참여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보다 많은 예비건축가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가를 독려할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공모심사였다.

—

한 필 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번 한국농촌건축대전의 계획부문 심사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기존 마을의 입구에 있는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이므로 방현마을의 건축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분석하고 설계에 반영하였는가, 특히 마을의 공간구조에 부합하는 설계인가 여부에 주목하였다. 둘째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설계이므로 마을 입구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내·외부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열환경 개선, 무장애 설계 등으로 환경 성능을 개선하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하는 점을 주로 살폈다.

대상 수상작인 ‘방현을 봄(A033)’은 건물과 마당, 담 등 방현마을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의 특징을 충실하게 관찰, 분석하여 설계의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현실 적용성이 큰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마을 공간구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4개의 필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을 입구의 장소성을 유지, 강화한 것이 돋보였다.

우수상 수상작인 ‘Cultivate the Future;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는 리모델링 개념을 잘 정립하고 공간의 성장 전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건축 해법 제시와 표현이 탁월한 작품이다. 다만 제시한 디자인의 근거를 방현마을의 현실에서 도출하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또 하나의 우수상 수상작인 ‘전원일기’ 역시 전반적으로 디자인 수준이 높다. 특히 무장애설계를 적용하면서도 무리 없이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우수한 설계 역량을 보여주었다. 다만 새로 설계한 ‘공동급식소와 작은 목욕탕’ 건물이 마을길을 일부 차폐하여 마을 공간구조를 교란시킬 우려를 낳은 것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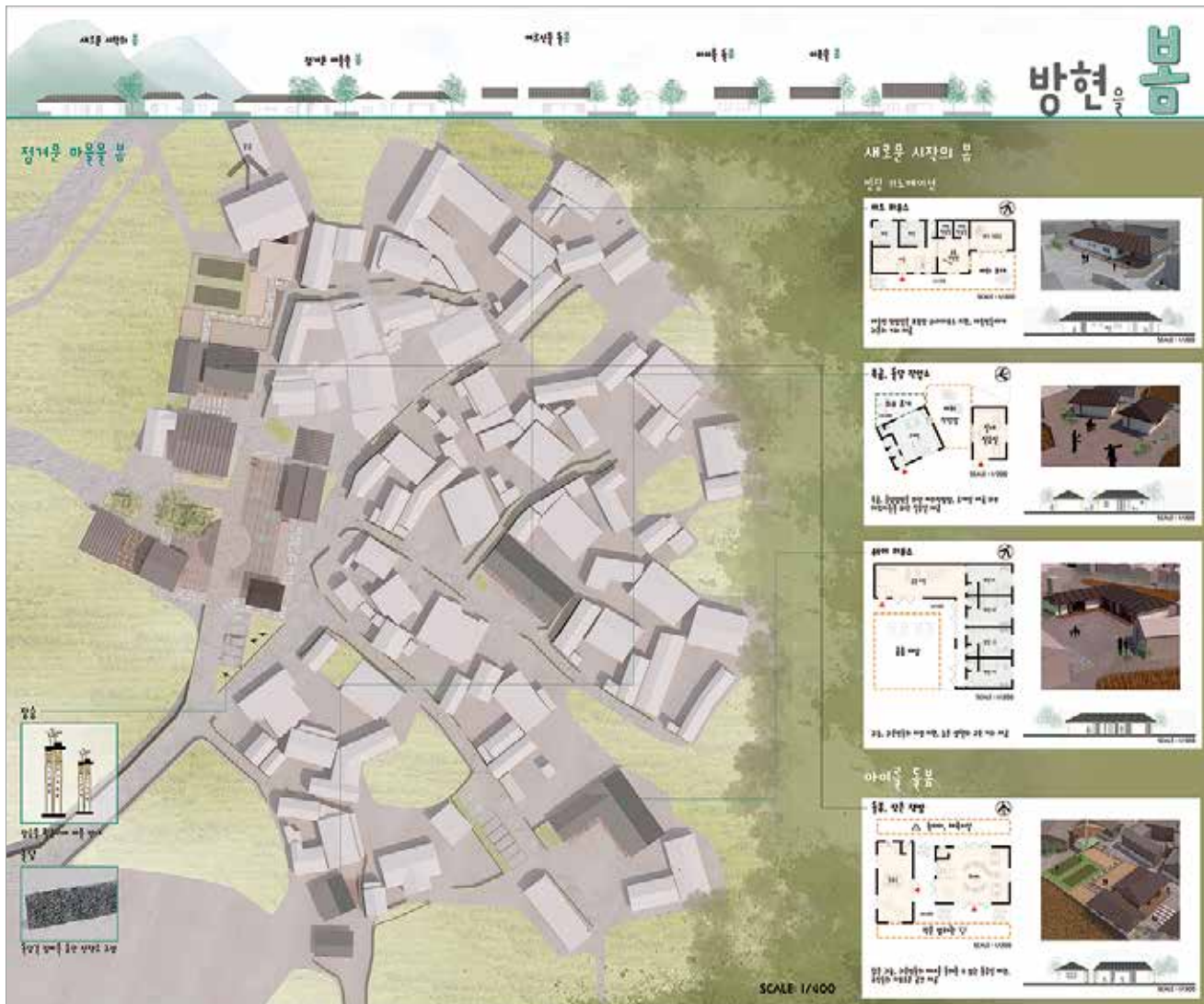
방현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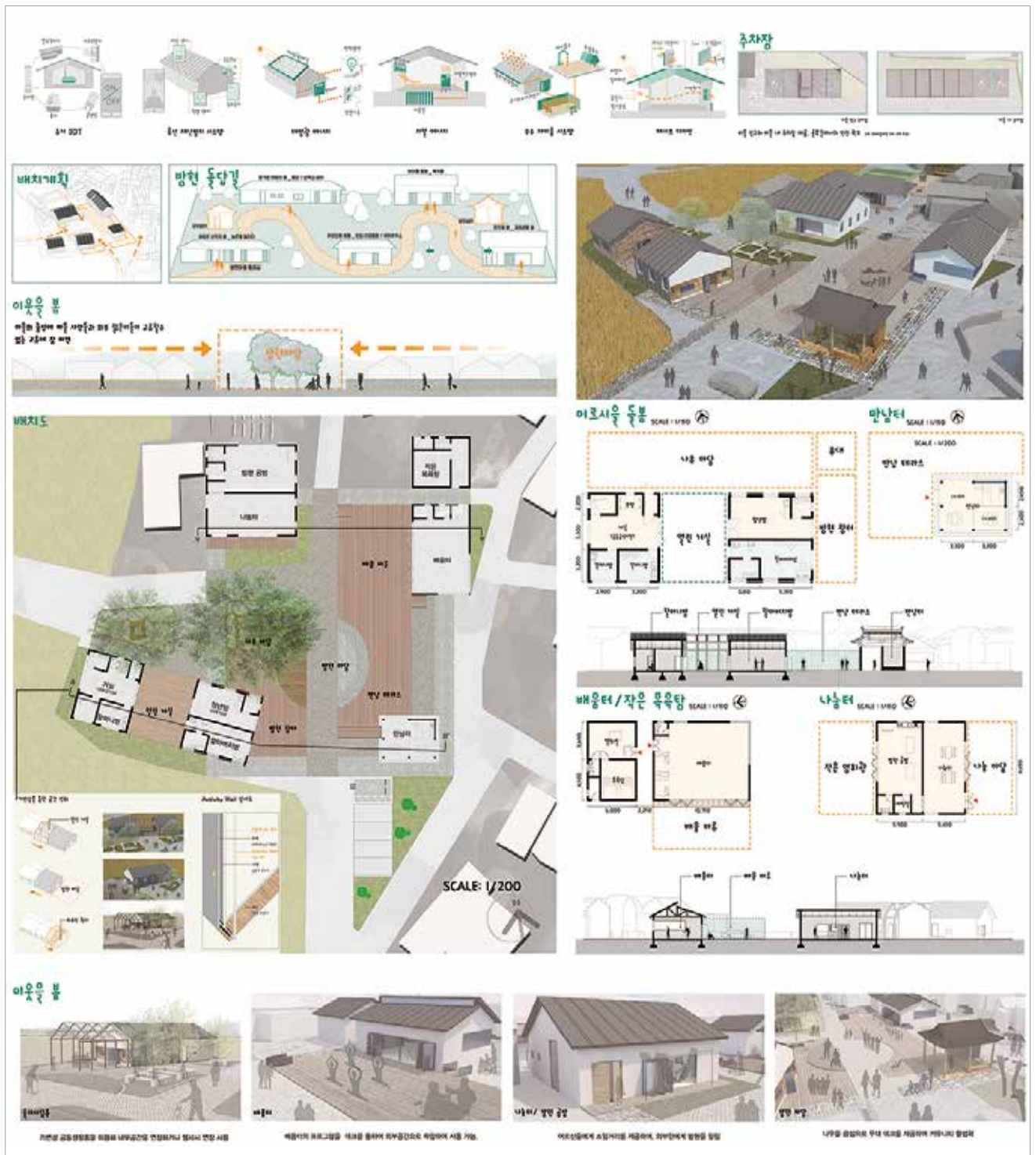
서창호 임창현 홍윤지
한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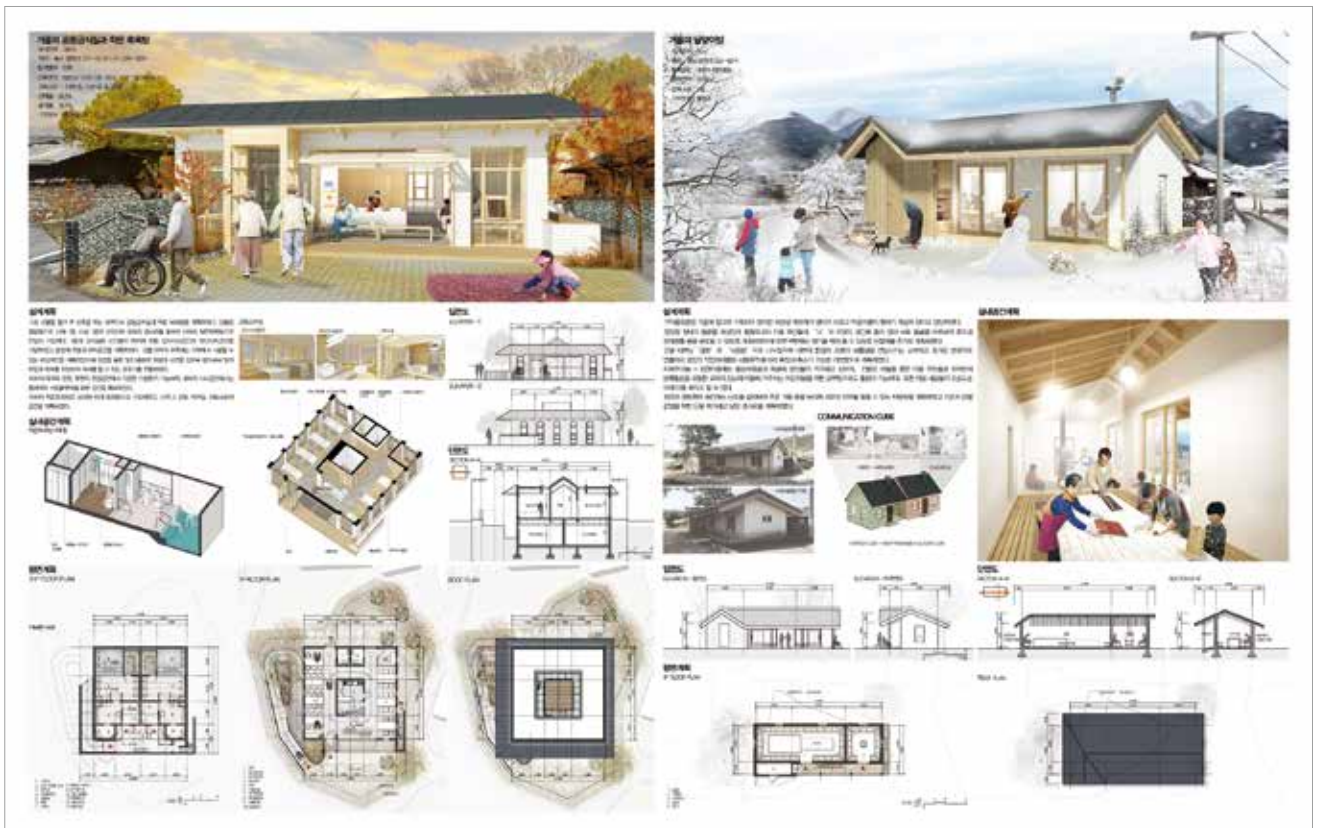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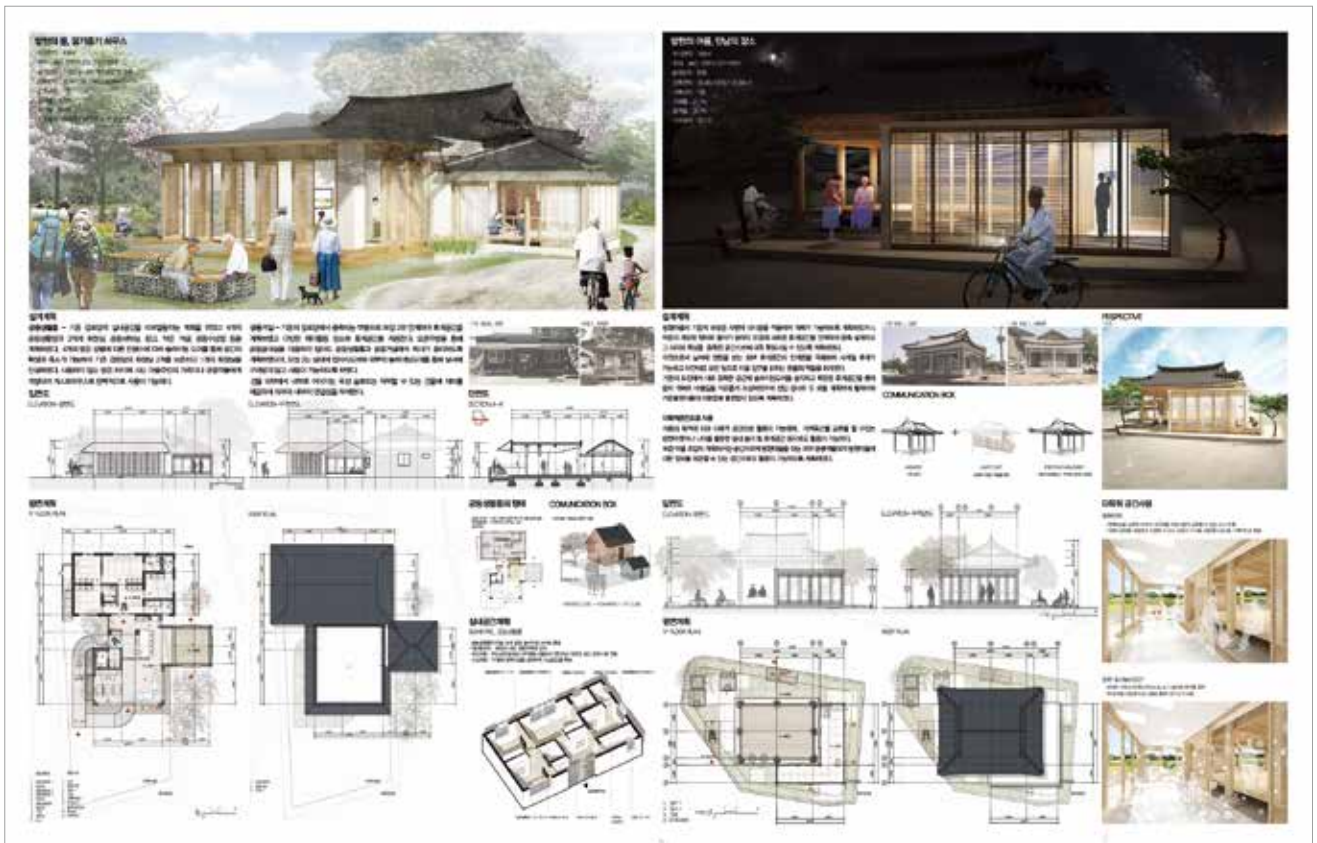
계획대지에 분산되어져 있는 건물들을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확보하여 협소한 내부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마을 축제 이벤트 공간 등 여러 마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당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각의 틈을 최소한의 단으로만 계획하여 사방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차량통행을 최소화하여 외부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정비와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방현 마을을 보고 싶은 방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이 자립하여 마을을 구성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돌담정비와 산책로, 주차장 계

획을 통해 정겨워진 마을을 조성합니다. 귀농, 귀촌인의 자녀와 마을의 어린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만나고, 교류하며, 행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마을에 활기를 띄게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에 사물인터넷을 적용시켜 주거관리와 주거인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 재난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축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우수 재이용 시스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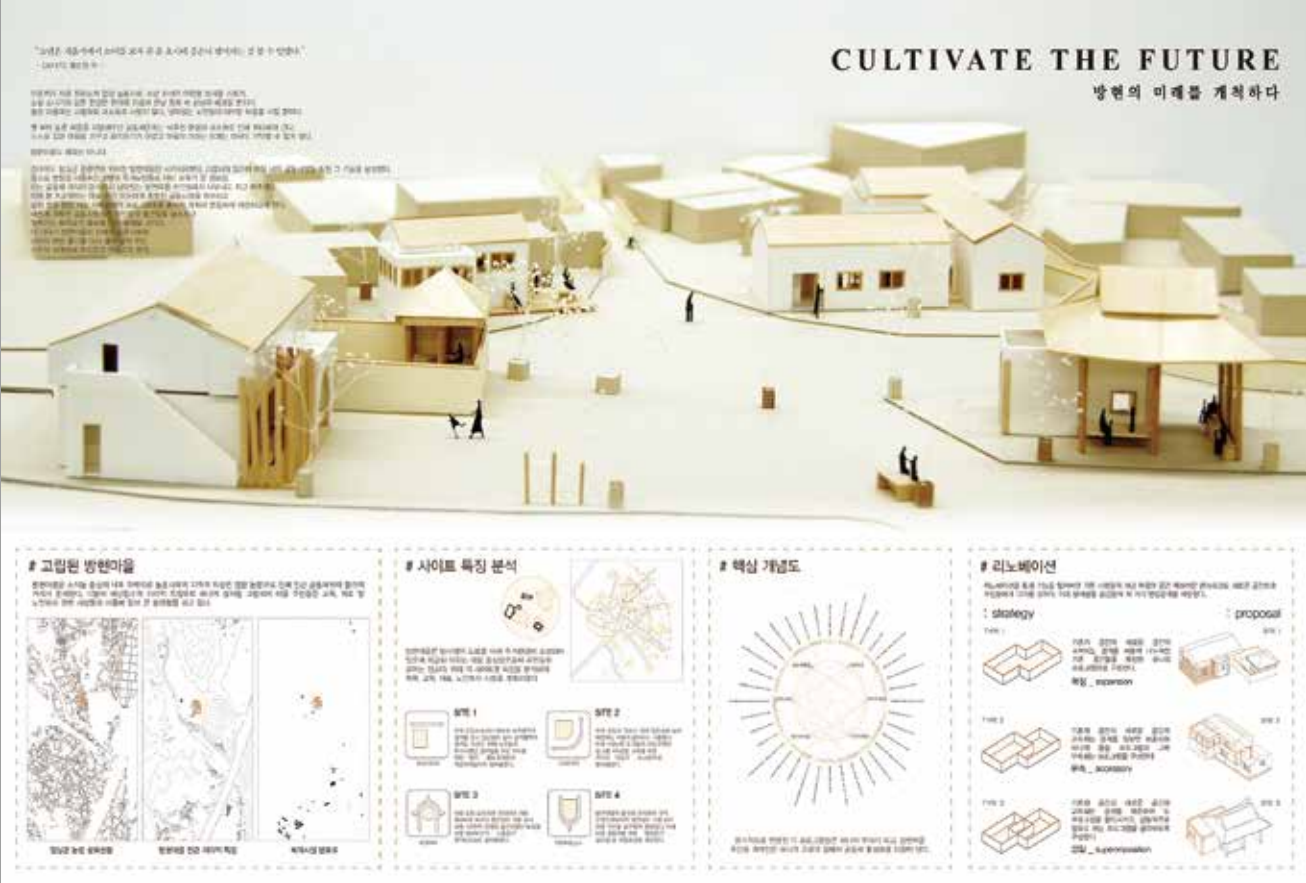
Cultivate the Future; 방현의 미래를 개척하다

김지수 전준호 이우평
한양대학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방현마을은 시가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마을 내의 공동시설들 또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창고로 변질된 마을회관, 9명의 독거노인들로 이미 포화가 된 경로당. 이는 공동체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방현마을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다. 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사회경제적 프로그램들을 물리적 계획과 연동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설들(경로당, 구 마을회관, 모정)은 모두 확장, 부속, 그리고 겸침의 원리를 통해 리노베이션이 된다. 이들은 각각 주민들 요구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들(목욕탕&황토휴게실, 방현도서관&정보교육실, 원격진료실)로 탈바꿈하게 되고 폭설로 인해 폐가가 된 부지에는 새로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들어서

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하나의 무대가 되어 방현마을 주민들 개개인은 하나의 교류의 장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현마을이 미래의 농촌사회에 사라져 버린 활기를 다시 불어 넣어 주는 선구적 사례로써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도란도란

김지희 정준영 김지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급성장하는 사회에서 농촌은 고령화된 노인분들의 삶과 일터로 자리를 잡고 있다. 도심에서는 공동체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반면에 농촌은 '집'조차도 노후화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위험과 불편함을 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할 공간 하나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촌에서 자신의 보금자리와 공간이 위협을 받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또한 주변에 없다. 노후화된 농촌주택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마을 안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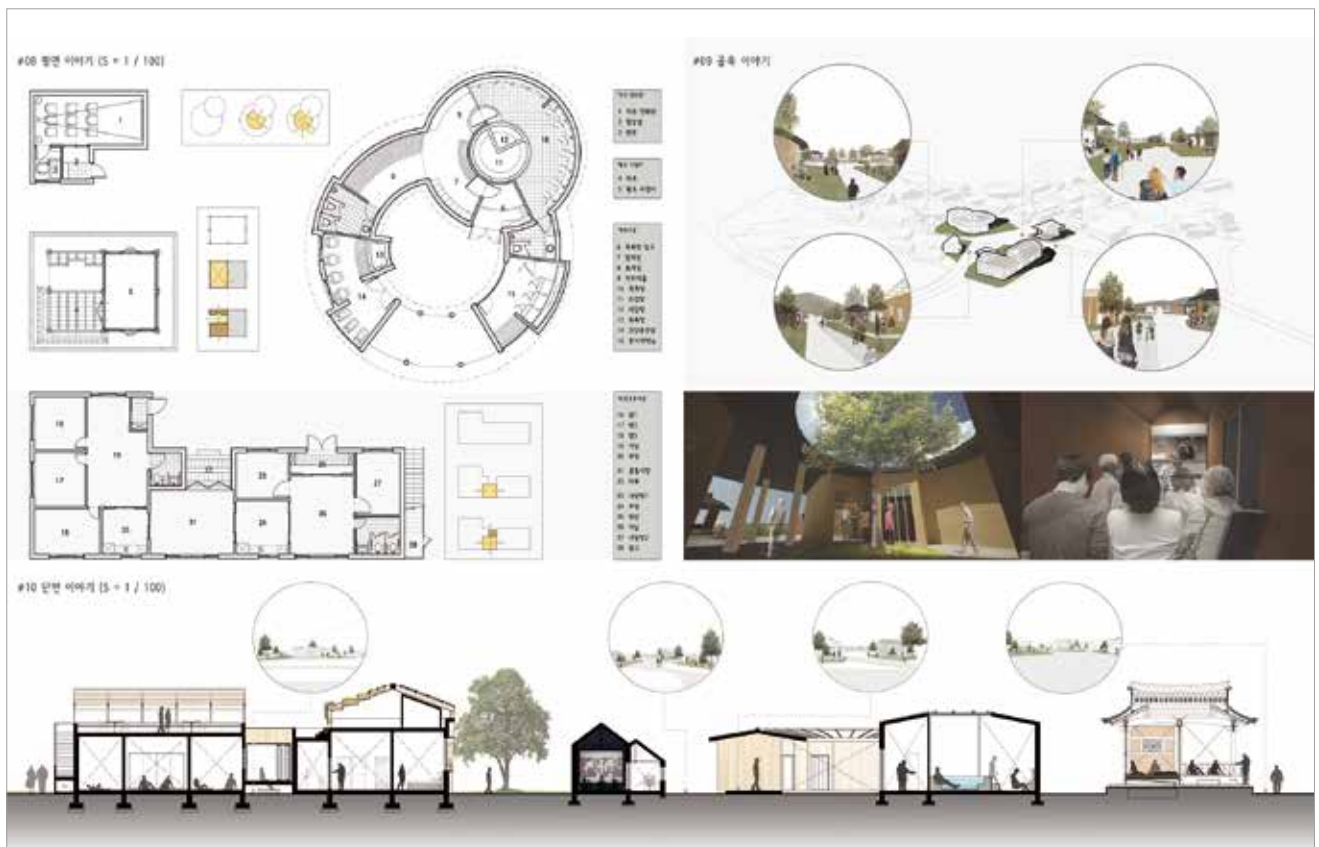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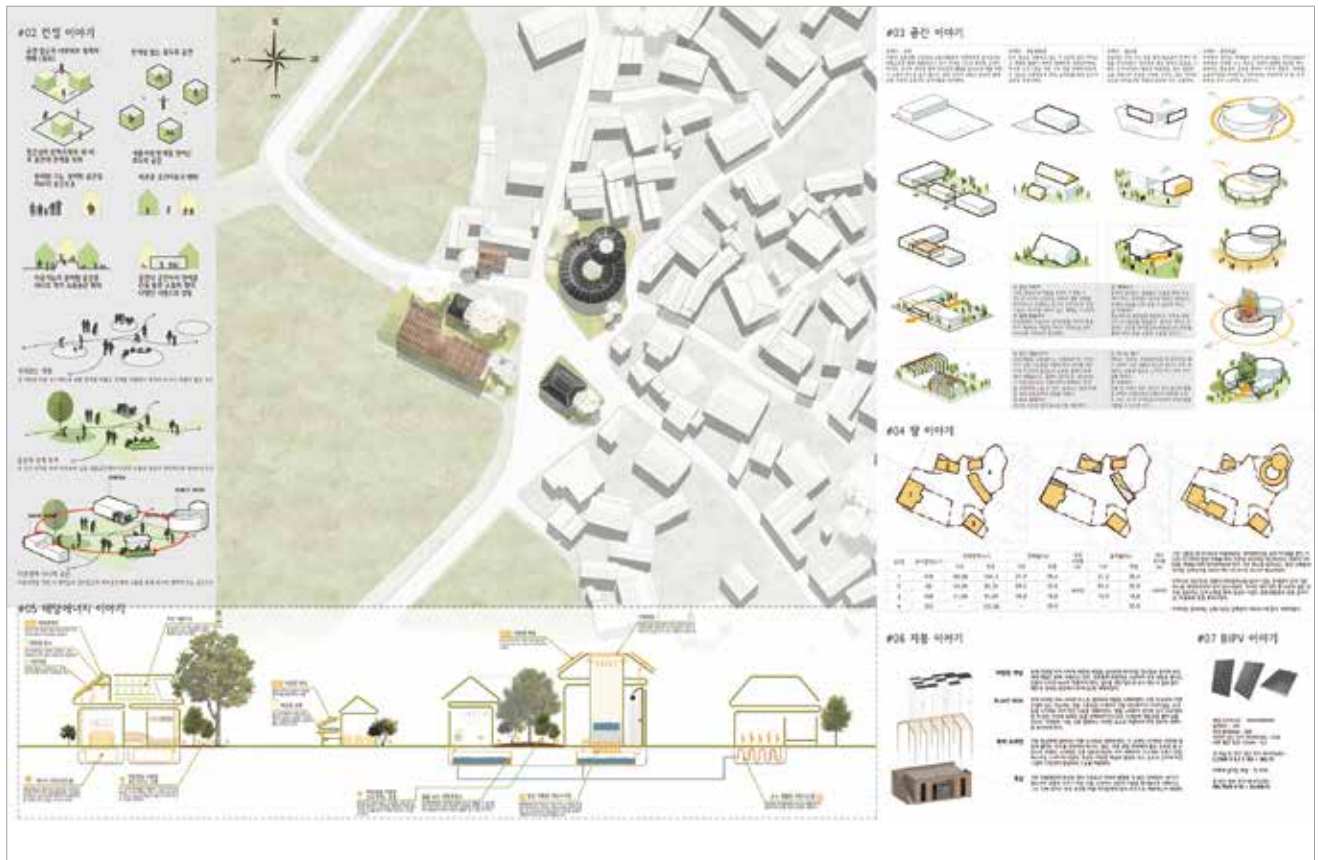
들락(樂)날락(樂)

강효진 김찬렬 백다혜
강원대학교

처음 방문한 임실군 방현마을에서 느낀 점은 무료함이었다. 할머니 두 분이 모정에 앉아계셨는데 그저 앉아만 계셨다. 대상지가 마을 중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로당은 독거노인 분들의 생활용으로 쓰이고 있어 기능이 모호하고, 대상지 내 빈집 터는 마을의 경관을 해치며 방치되어있었다. 다른 문제로는, 마을 주택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생 등의 시설이 미비해 노인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실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생활·편의·문화 혜택을 볼 수 있고, 무료함을 달래는 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마을회관 외 공동 생활화, 공동 급식소를 추가로 계획하였고, 노인 분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목욕 시설과 황토 찜질방, 그리고 문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은 영화관을 계획하였다. 대지는 대지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에 의해

4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 길이 각 대지로 가는 전이공간이라고 생각해 설계할 공간에도 이러한 특성을 연결 지었다. 대지의 협소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공간감을 느끼도록 디자인하였다. 들락날락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에도 나와 있듯 나뉘어져 있는 각 SITE를 들락날락하며 즐거움을 찾고, 결국에는 이 대지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읽히게끔 하였다.





食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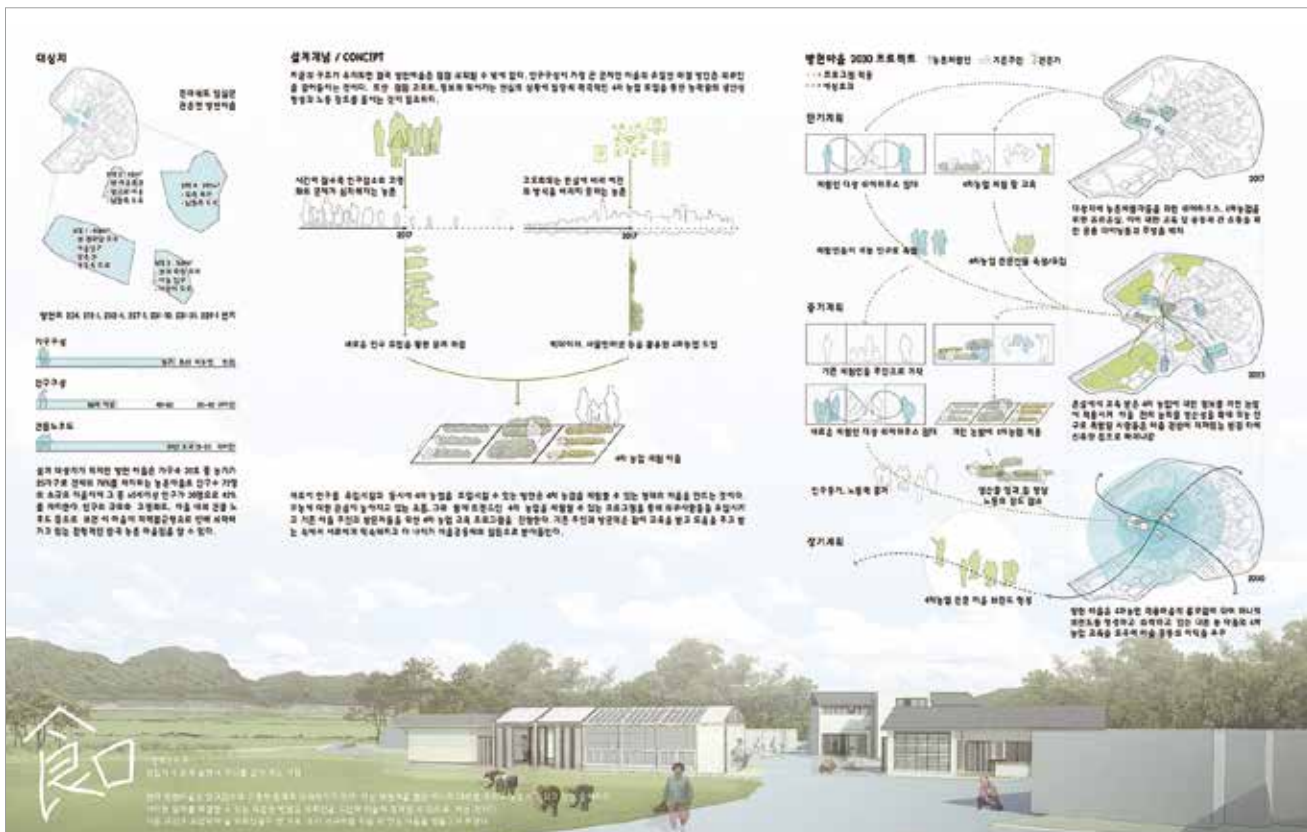
서미주 김동영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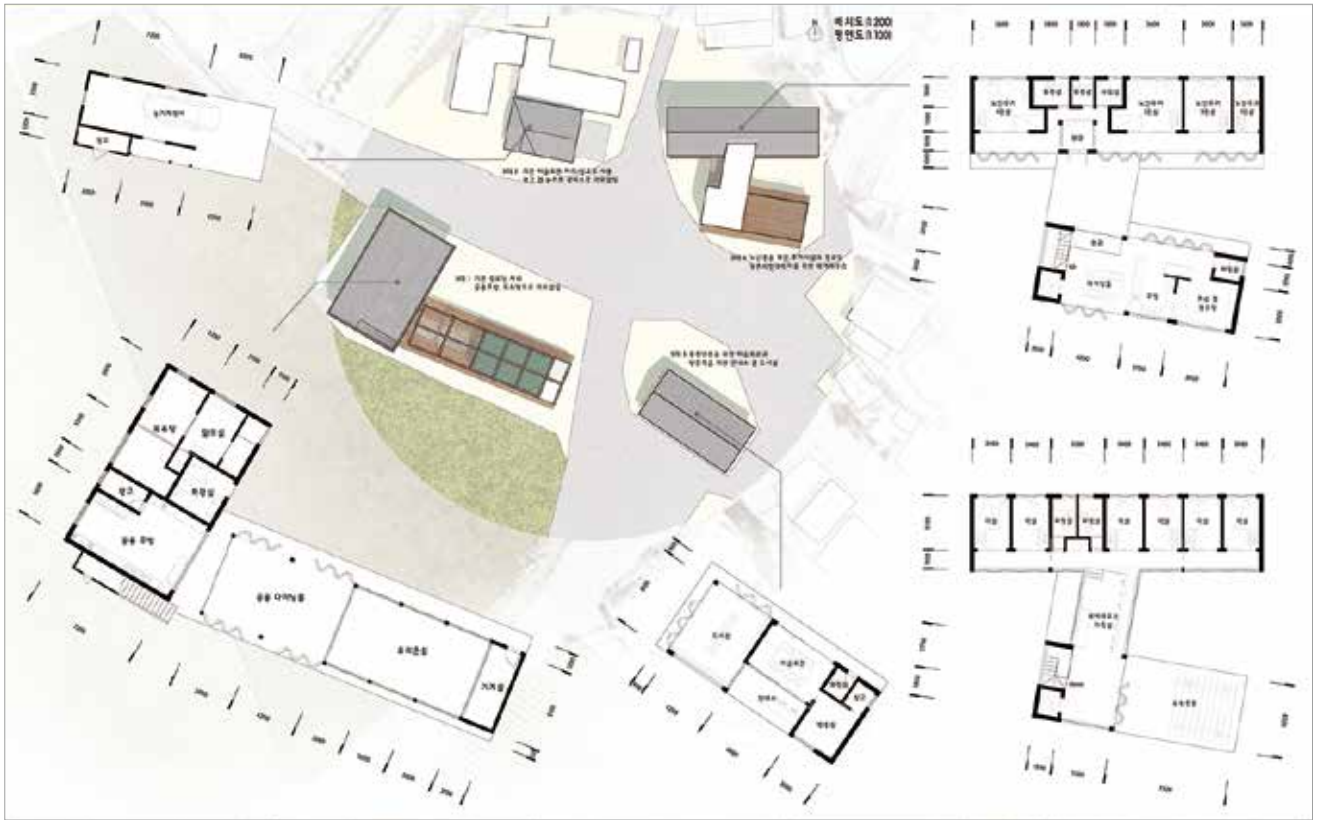
방현 마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쇠락해가고 있는 농촌 마을이다. 이는 비단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네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것으로의 발전에만 집중해있는 우리에게, 농촌의 쇠락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잃어버리고, 점차 농촌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한 마을이나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그것은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은 희망이, 4차농업이라는 시스템과 만나 체계적인 마을 프로그램으로 구축되면, 쇠락으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 농촌 마을을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농촌이 사라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프로젝트 '식구'는 농촌 마을이 농업으로써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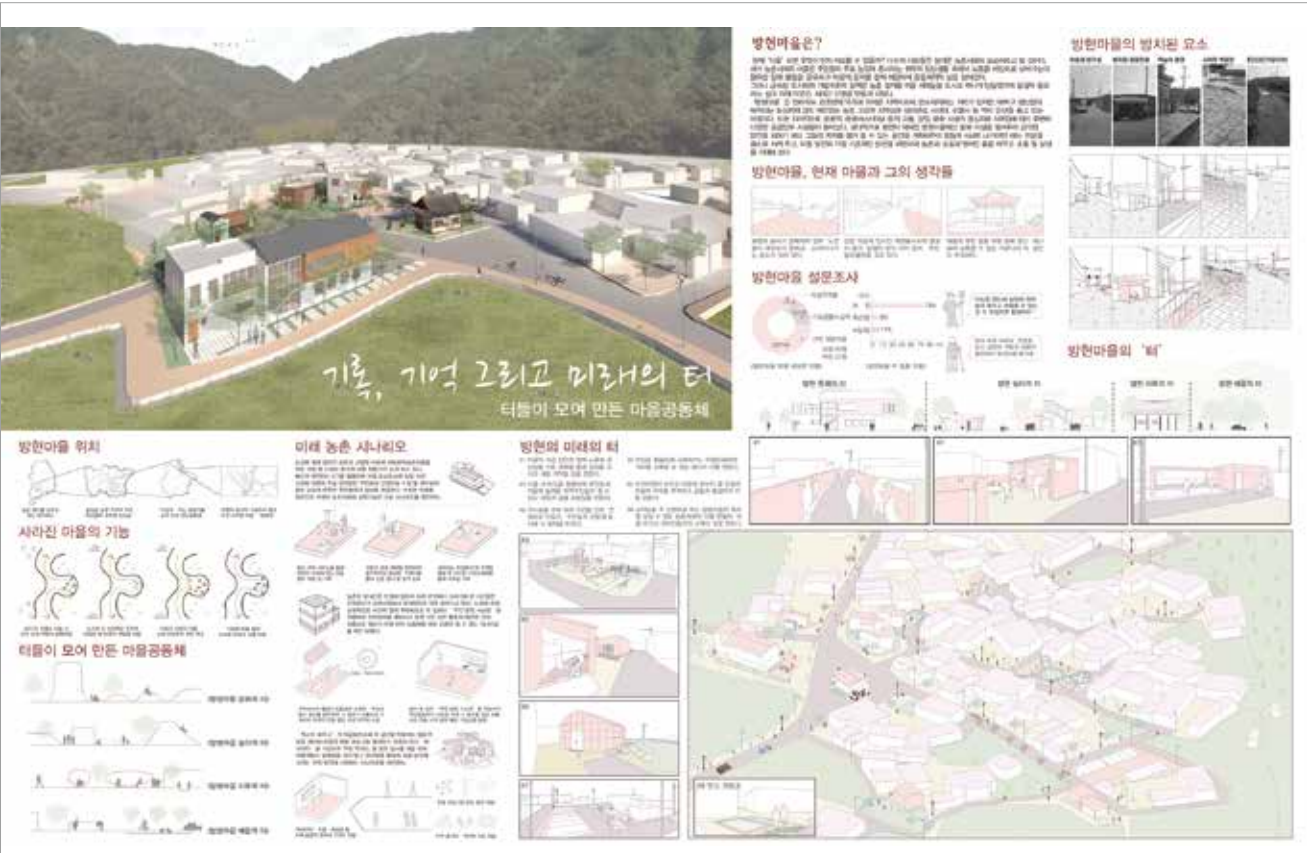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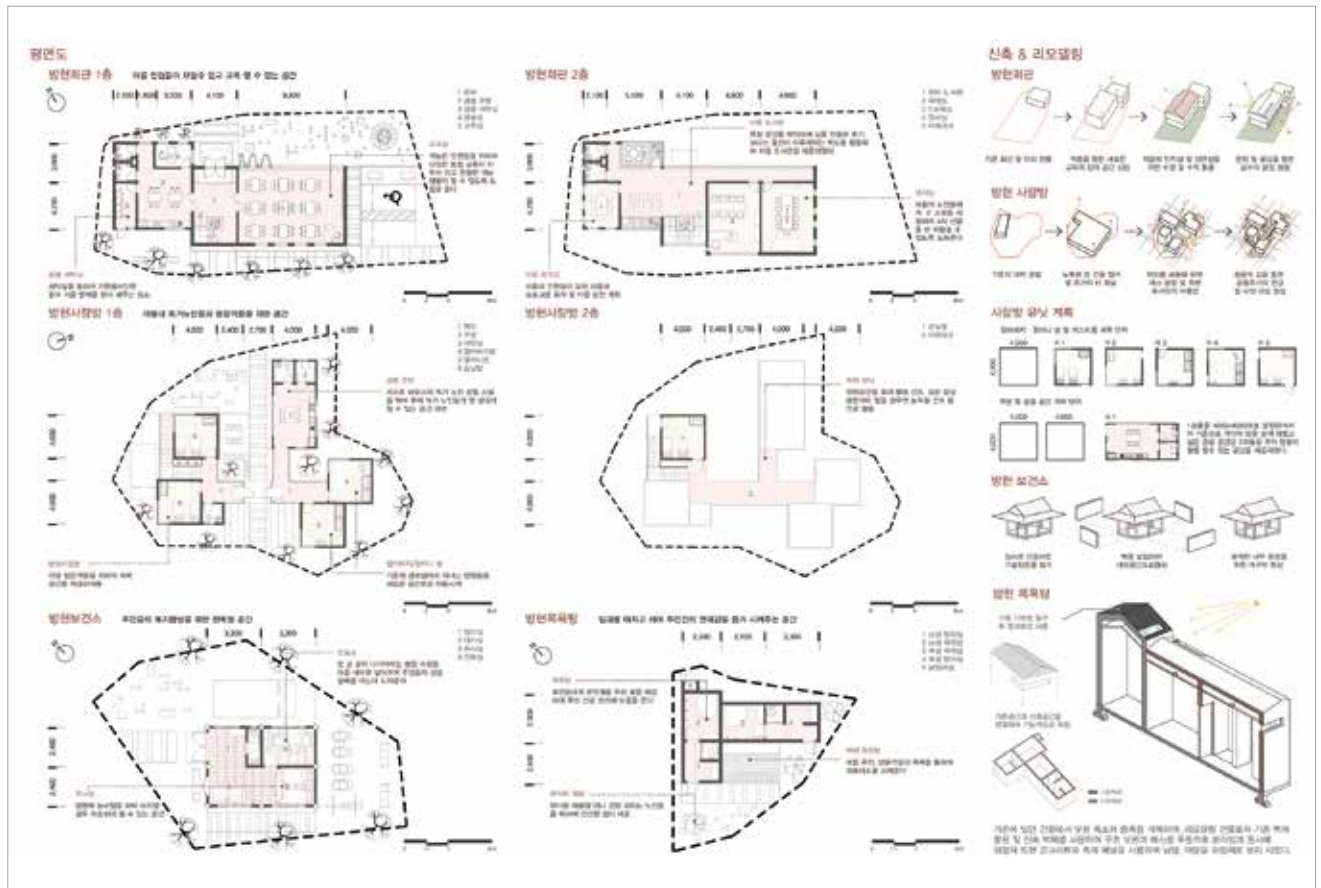
기록, 기억 그리고 미래의 터

이도형 이봉근 배강우
선문대학교

터들이 모여 만든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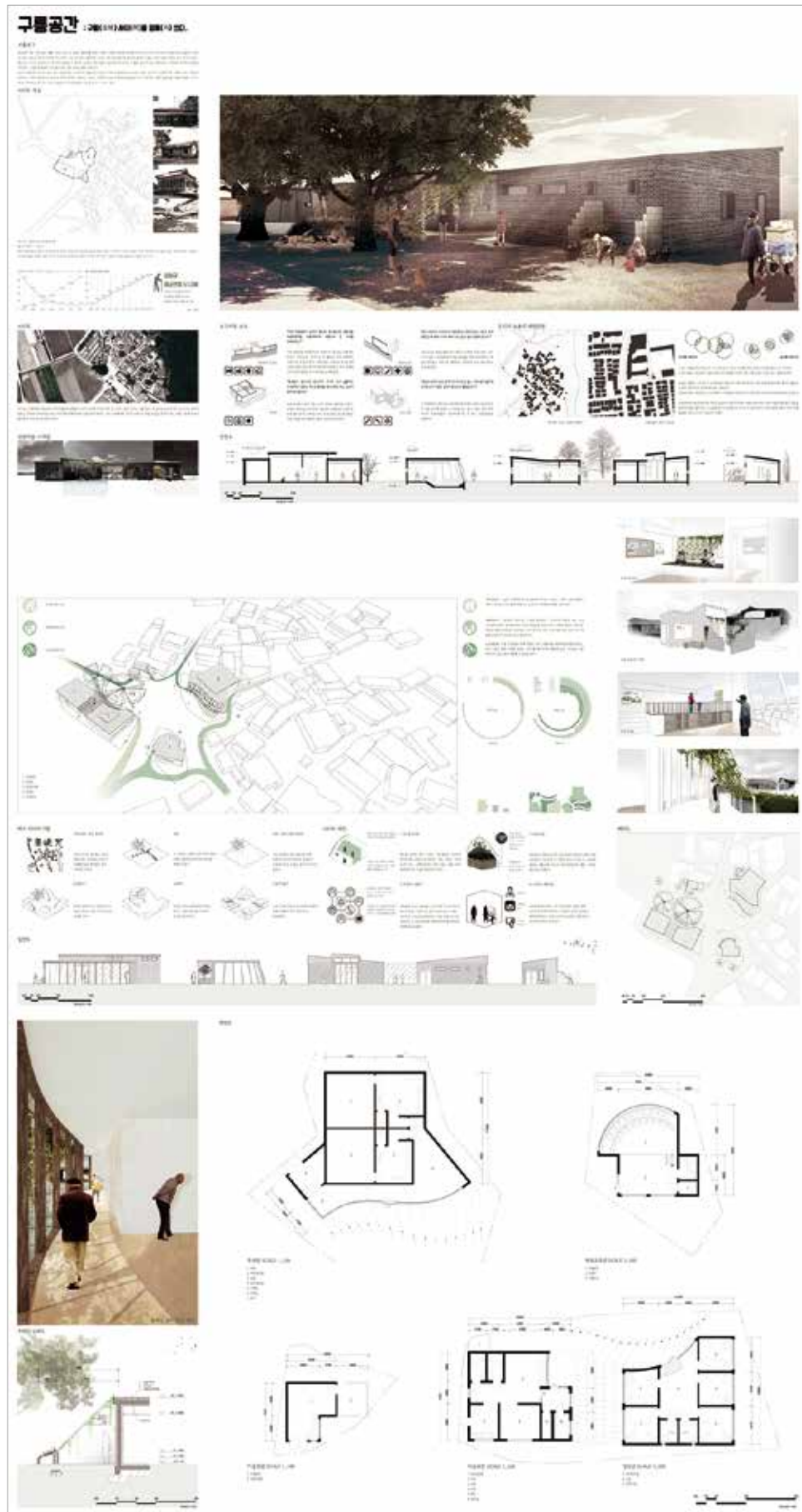
현재 '마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를 수 있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정겨운 농촌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방현 마을'은 전라북도 관촌면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지리적으로 관촌역, 관촌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상업, 문화 시설의 중심지가 되면서 주변에 다양한 공공업무 시설들이 들어섰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방현 마을에선 문화 시설을 챙겨주어 급격한 발전을 피하기 보다 그들의 복지를 챙겨 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주어 힘들게 시내로 나가야만 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마을 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의 벌어진 틈을 메우고 소통 및 상생을 위해서 마을 부분만 계획하지 않은 전체적인 마을 계획을 제안하여 문화와 놀이 치유와 배움의 터들이 모여 만든 마을공동체를 소통의장을 형성하여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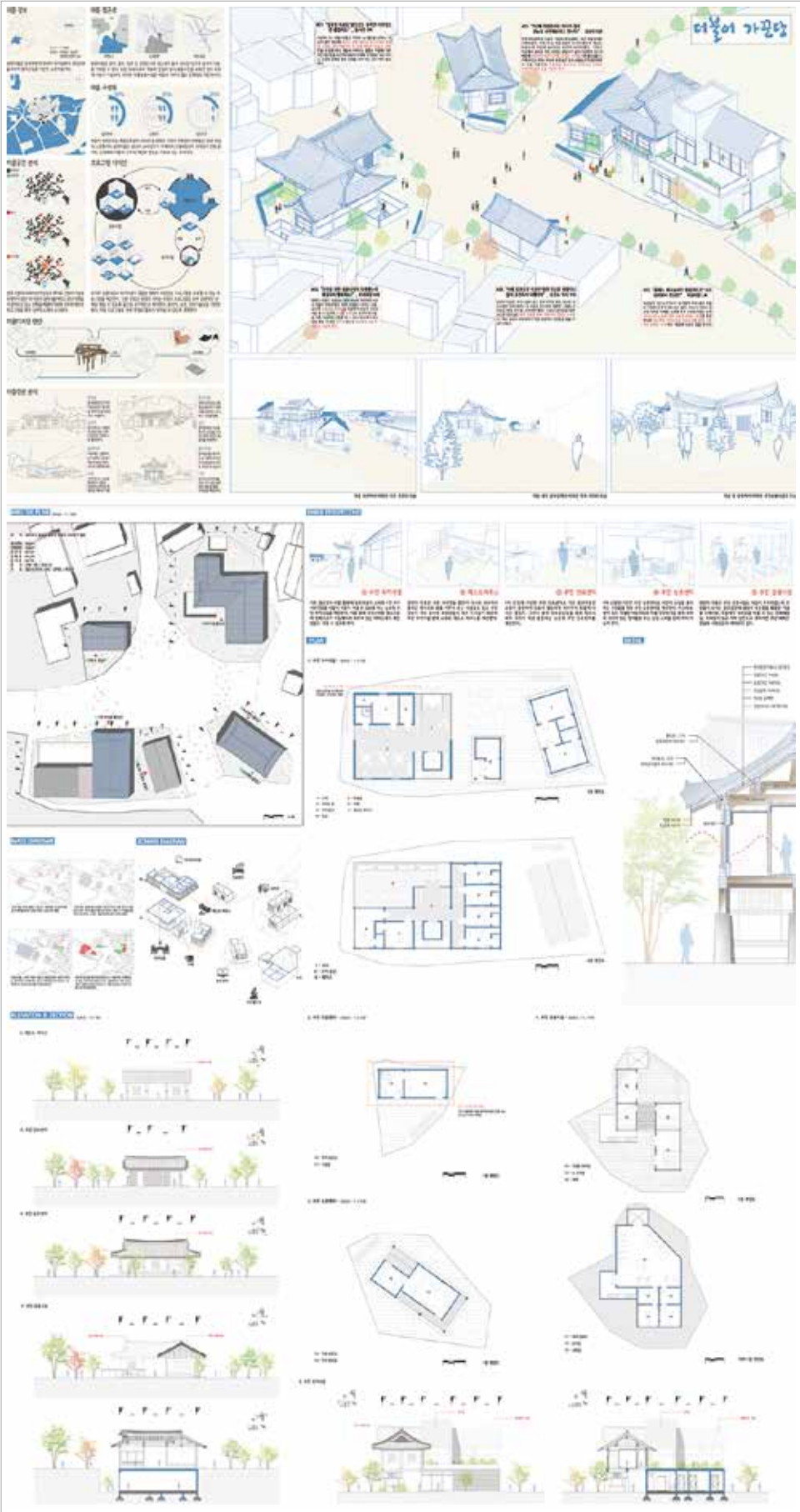
구릉공간

최재혁 정기담
세종대학교



더불어 가꾼당

오경하 정훈재
명지대학교



입선

돌 ; 담 이야기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

김지현
중부대학교

돌 ; 담 이야기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전체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단기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중기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장기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지역 특성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주요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시공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예산 계획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마감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계획안.

돌담애<愛>

전준수
경북대학교

돌담애(愛)

; 방언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서

이런 애는 사랑을 갖고,
이런 애는 사랑을 받으며,
이런 애는 사랑을 고쳐주고,
또 이런 애는 사랑 후 사랑을 받는다.
이처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방언마을이라는 한 울타리 속 돌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있는 것에서 고요.

개요

도시 위치 : 신라북도 함창군 관음면 방언마을
 총 면적 : 1,061㎡ (약 436, 86, 980, 480)
 용 도 : 주민 센터 1동 및 공공시설
 구 조 : 1상 3층, 3상 2층
 건 물 륜 : 48.5 %
 용 적 륜 : 154.5 %

대지 분석

문제 및 해결방안

전체

평지도

플랜 디자인 정리

프로그램

평면도

유니버설 디자인

ICT기술연계 디자인

주재료

평면도 & 단면도

평면도 & 단면도

평면도 & 단면도

평면도 & 단면도

평면도 & 단면도

동거동락

조태현 강희강 김진우
동신대학교

동거동락 : 同居同樂

함께 살며 함께 즐거움마을 만들기



PROLOGUE

현재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가 감소화, 농민 고령화 문제 해결에 무수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계층과 세대차이가 늘어나 농촌 지역 노인들은 보다 풍요로운 노년생활에 직면해 있으나, 특히 더 많은 소득과 서비스를 얻기보다 어울리며 즐거운 삶을 지극히 추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와 어울려 노년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개인주변에서 특기사항에 다양한 조직을 형성,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 그리고 양편을 위한 모두 사용하는 공동체로 일상생활, 휴식, 소통,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농촌이 활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건축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4000㎡의 땅을 계획했다.


CONCEPT

이 공간에서는 노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어울리며 노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형성,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 그리고 양편을 위한 모두 사용하는 공동체로 일상생활, 휴식, 소통,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농촌이 활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건축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4000㎡의 땅을 계획했다.




PROGRAM

이 공간에서는 노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어울리며 노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형성,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 그리고 양편을 위한 모두 사용하는 공동체로 일상생활, 휴식, 소통,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농촌이 활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건축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4000㎡의 땅을 계획했다.



GROUND PLAN


이 공간에서는 노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어울리며 노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형성,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 그리고 양편을 위한 모두 사용하는 공동체로 일상생활, 휴식, 소통,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농촌이 활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건축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4000㎡의 땅을 계획했다.



PURPOSE

이 공간에서는 노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와 어울리며 노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형성,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소, 그리고 양편을 위한 모두 사용하는 공동체로 일상생활, 휴식, 소통, 여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농촌이 활기 넘치는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건축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4000㎡의 땅을 계획했다.


ELEVATION



PLOT PLAN



SITE VIEW



두근두근 다시 뛰는 방현마을

장미나라
호서대학교



連 ; 잇닿다

안영연
중부대학교

개요

- 대지 위치 : 권역하고 영남권 간선권 발전지역 - 총 부지면적 : 1,931㎡
- SITE 1 면적 334.1㎡ - 면적 : 49㎡ - 건폐율 용적률 : 28.5%, 45%
- SITE 2 면적 221.1㎡ - 면적 : 85㎡ - 건폐율 용적률 : 38.9%, 79.9%
- SITE 3 면적 221.1㎡ - 면적 : 133.6㎡ - 건폐율 용적률 : 1.26%, 79.9%
- SITE 4 면적 275.1㎡ - 면적 : 389.2㎡ - 건폐율 용적률 : 37.0%, 27.0%

대지조사

권역하고 영남권 간선권 발전지역은 일반공과 가까이 위치한 환경 지인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공업지역은 소각장 중심의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비율분석

남 : 36.5 도아 44.9%, 2021.000.40 62%, 남경 : 38.6 도아 39.5, 이리선상 39.5%

대지분석

- 마을 분석

나주, 노후화된 주거 주거공간 부족 소규모 주택 배치된 구역
- 생활방안

1. 나주, 노후와 마을을 형성, 재개발 시기 지향 고밀도 개발
2. 마을 내외부에 삶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계획
3. 마을 시민을 나누기 위해 소규모 수 있는 공간에 계획, 마을에 부합한 계획
4. 공공 생활공간을 설치해 주거공간이 부족했던 마을 분위기를 개선

건설

활성화에 일 중재 '생활노 동권도' 지역도 승용도 지역도 함께 주거공간이 개발된다. 지역도 승용도 지역도 함께 주거공간이 개발된다. 지역도 승용도 지역도 함께 주거공간이 개발된다.

배치계획

1. 건물과 가장 선명하게 결합으로 이어지도록 배치를 계획해 함께 살아가고 마을에 함께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설계
2. 소규모 1층 건물과 함께 기존 마을의 질감과 연결되도록 계획
3. 지역공간에 외부공간을 계획할 뿐더러 정선하고 마을 시정되어 페르소나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4. 각 부수마다 조형적으로 선명히 자연속에 있는 느낌을 계획

連 ; 잇닿다 - 돌고 돌아 이어지다.

평면도

- SITE 1 "마을회관" 건폐율, 용적률 : 28.5%, 45%

- SITE 4 공동생활시설 건폐율, 용적률 : 37.0%

- SITE 3 특화한 건물, 용적률 : 39.9%, 79.9%

- 기존 생활공간을 일부로 후속하고 활용하여 1층, 2층, 3층, 4층의 공간에
- 1층에 공용공간과 주민공간이 있으며 2층에는 게스트룸 형식의 생활 카페를 이용해 커뮤니티를 지원 할 수 있는 공간 계획
- 1,2층 내부공간에 카페를 운영하게 시정하는 생활공간을 함께 배치되게 한다

- 공용거주형 생활공간을 위해 생활공간을 확대하여 배치
- 각 공간 자체적으로 방음에 고려하여 사생활을 보장하여 쾌적
- 배차실과 공용주차장으로 편의성을 제공
- 주차공간에 외부로 개방되고 동선도 편리하게 계획해 편리한

- SITE 2: 기존 마을을 함께한 지 생활공간을 계획하여 계획
- 2층은 시정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할 수 있는 공간 계획
- SITE 3: 기존 마을을 함께한 생활 공간, 이를 커뮤니티로 계획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하여 생활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

노인형 생활실

생활공간

배치 계획

마을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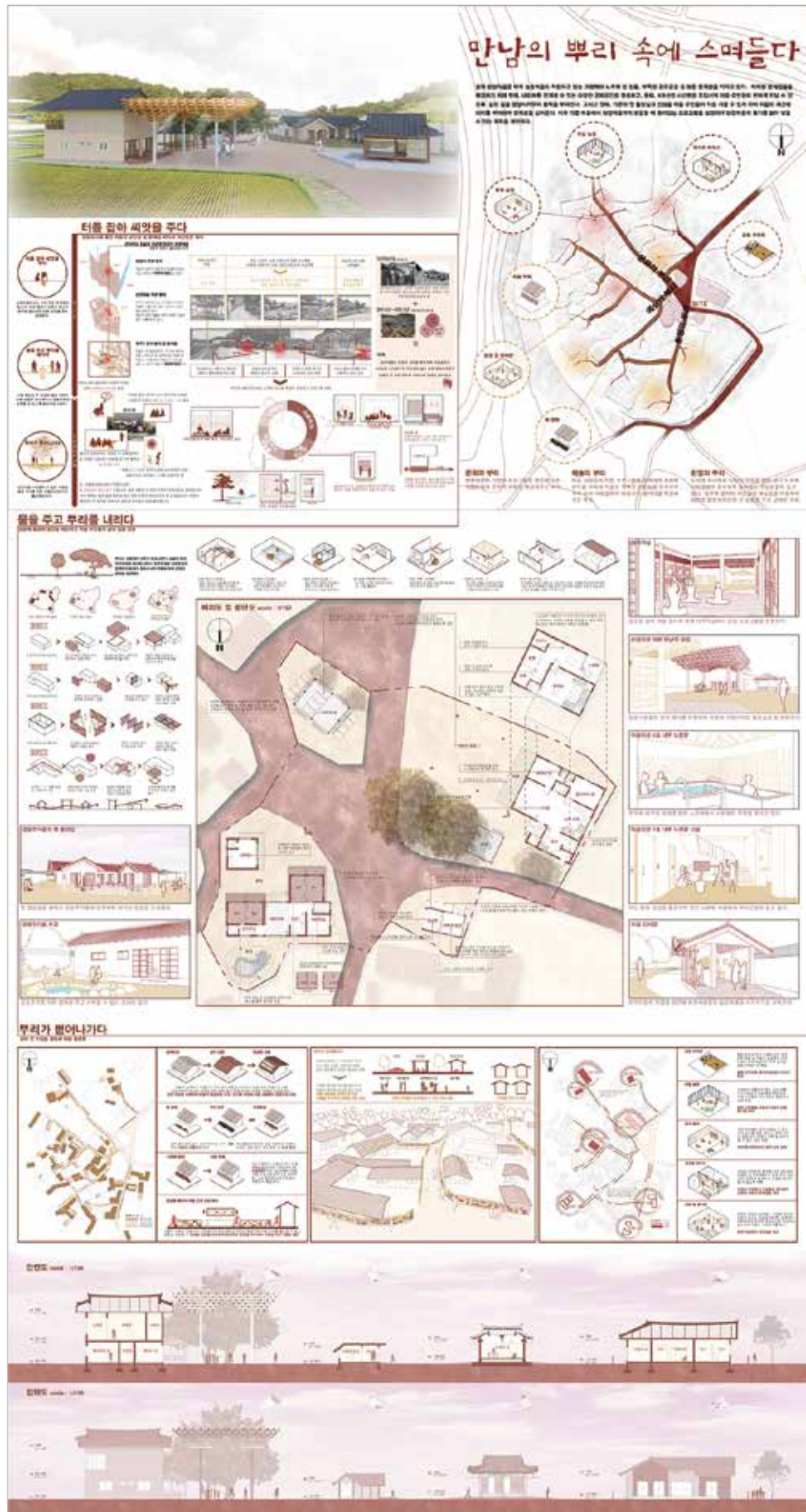
마을공간 조성 2

마을공간 조성 3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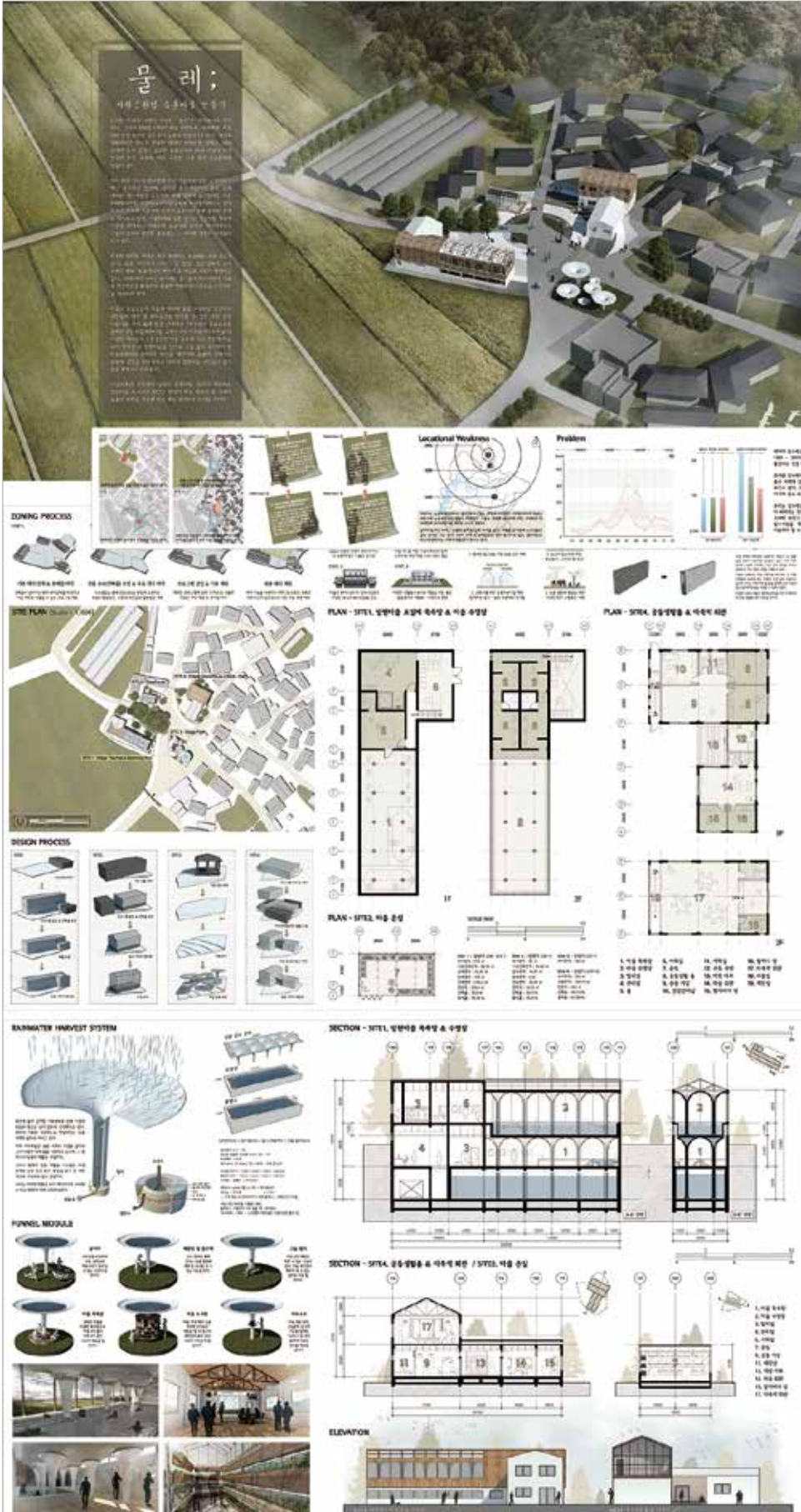
만남의 뿌리 속으로 스며들다

신채원 김기덕 송근봉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물레 ;

홍찬호 강태환 정윤환
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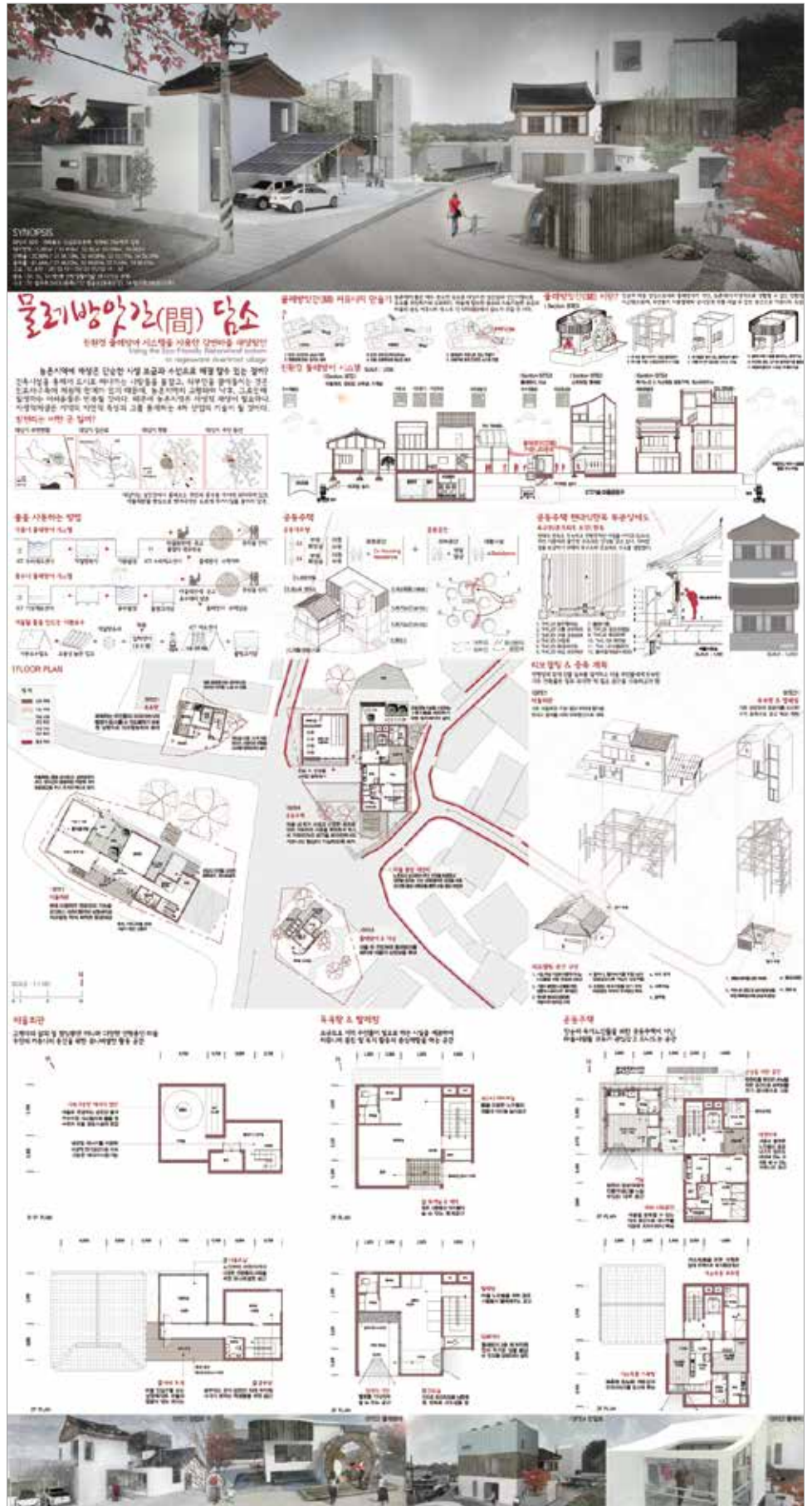
입선

물레방앗간<間>

답소:

친환경 물레방아 시스템을
활용한 강변마을 재생 방안

신초롱 김대겸
선문대학교



방현's 로컬커넥터

<local connector>

유도안
부경대학교

방현's 로컬커넥터

주요내용

구분	구분	구분
1. 건축면적	2. 용적률	3. 층수
4. 주차면수	5. 주차비율	6. 기타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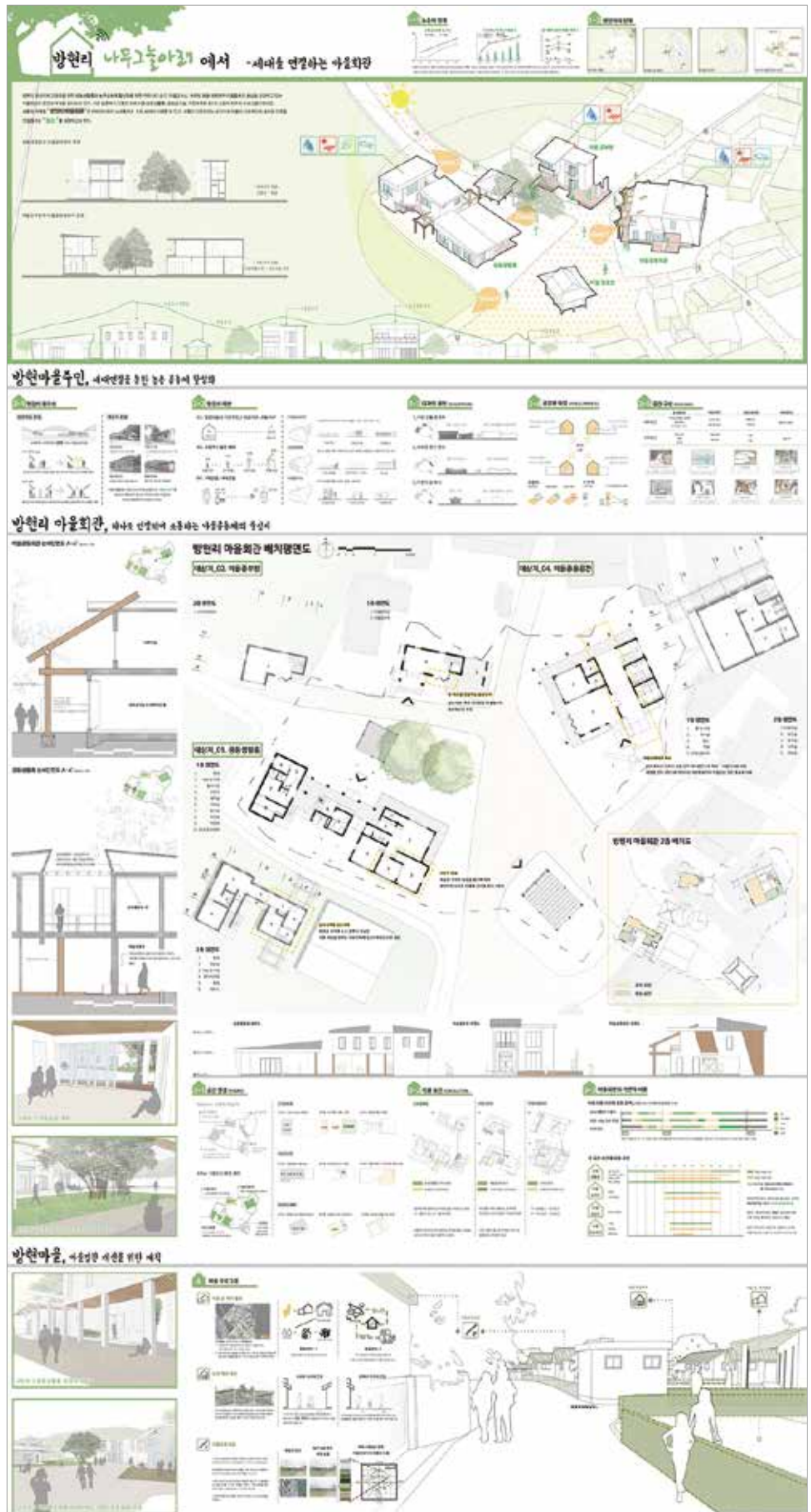
99

100

입선

방현리 나무그늘 아래에서 ; 세대가 연결되는 마을 회관

박준현 정승호 권근애
가톨릭관동대학교



방현마을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노우택 김도연 최동익
영남대학교

방현마을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BANGHYEON VILLAGE SHARED FACILITY PLAN)

본 계획안은 방현마을의 전통적 마을 구조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동이용시설의 계획안이다. (This plan is a plan for a shared facility in Banghyeon Village, considering the traditional village structure and natural environment to improve residents' convenience and activate the village community.)

CONCEPT (개념): 전통 마을의 정자(井字) 구조를 모티브로 하여,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공공공간을 통해 주민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Concept: Inspired by the traditional village 'jeongja' (well) structure, this plan promotes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through a public spac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while maintaining the village's identity.)

PROCESS (과정): 1. 마을 현황 파악 (마을 구조, 인구, 시설 현황) 2. 주민 요구조사 (공동이용시설 필요성, 기능, 형태) 3. 계획안 수립 (부지 선정, 시설 배치, 구조 설계) 4. 주민 협의 (계획안 설명, 의견 수렴) 5. 시공 (공사 진행, 시설 완공) 6. 운영 (주민 참여, 시설 관리) (Process: 1. Village Survey (Structure, Population, Facilities) 2. Resident Survey (Need, Function, Form) 3. Plan Development (Site Selection, Facility Placement, Structure Design) 4. Resident Consultation (Plan Explanation, Opinion Collection) 5. Construction (Construction Progress, Facility Completion) 6. Operation (Resident Participation, Facility Management))

MPGD PROCESS (MPGD 과정): 마을 만들기 (마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MPGD Process: As part of Village Making (Village Improvement Project), this plan encourages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to enhance the village's sense of community and sustainability.)

SITE PLAN (부지 계획):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부지를 선정하여, 마을의 정자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시설 배치를 계획한다. (Site Plan: Select a site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planning a facility layout that harmonizes with the village's well structure.)

SECTION PLAN (단면 계획): 시설의 단면 구조를 계획하여, 마을의 전통적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설계한다. (Section Plan: Plan the cross-section structure of the facility, designing a structure that harmonizes with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of the village.)

PLAN (평면 계획): 시설의 평면 구조를 계획하여, 마을의 정자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설계한다. (Plan: Plan the floor plan structure of the facility, designing a structure that harmonizes with the village's well structure.)

DETAILS (상세 계획): 시설의 세부 구조를 계획하여, 마을의 전통적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설계한다. (Details: Plan the detailed structure of the facility, designing a structure that harmonizes with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of the village.)

3D RENDERING (3D 렌더링): 시설의 3D 렌더링 이미지를 제공하여, 시설의 외관과 마을 환경의 조화를 보여준다. (3D Rendering: Provide 3D rendering images of the facility to show its appearance and harmony with the village environment.)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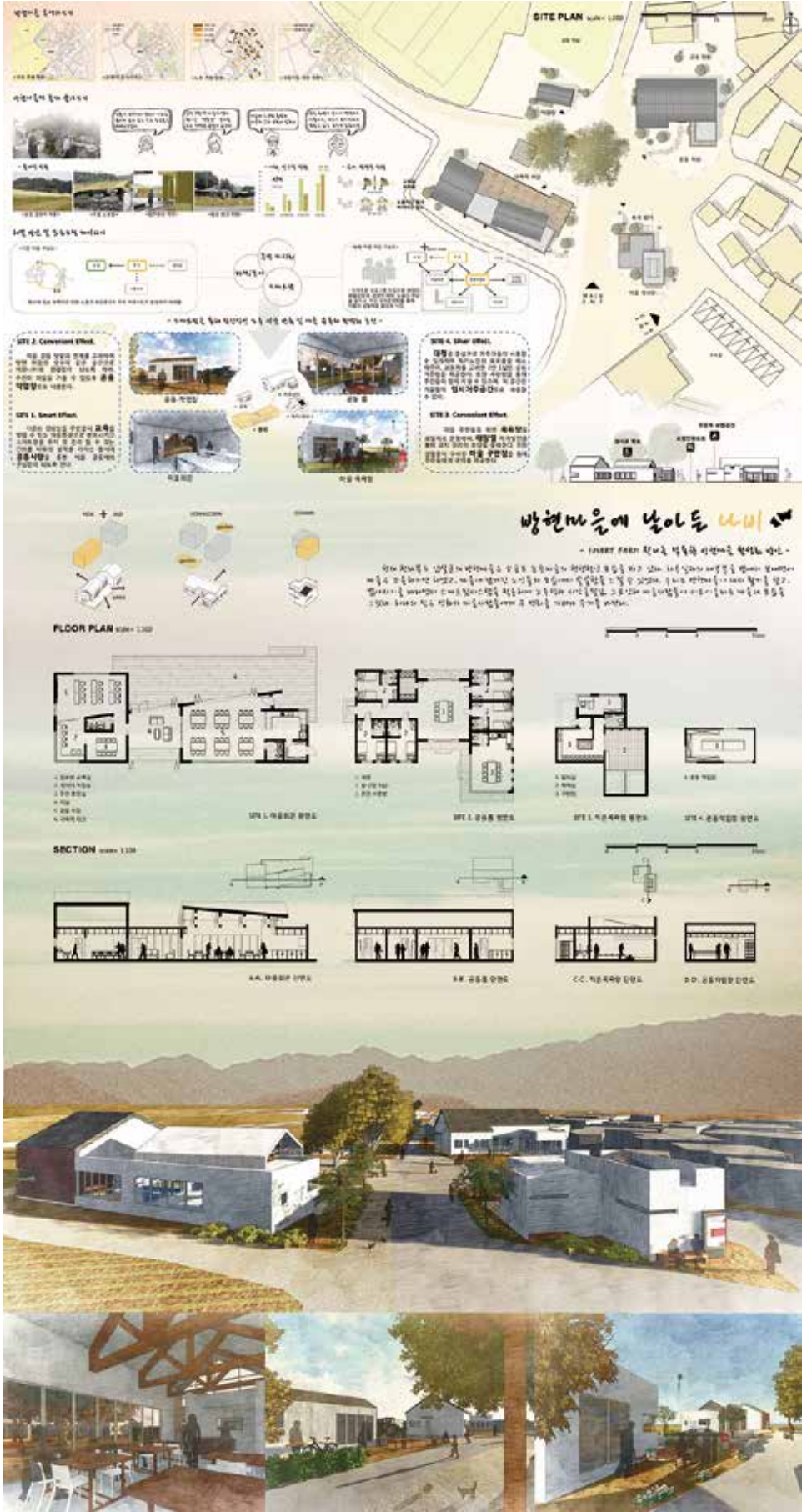
방현마을 타임라인

조흥래 이호인
금오공과대학교



방현마을에 날아든 나비

김재일 손동철
경상대학교



입선

방현마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노광래 김민철 김령은
원광대학교

방현마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Problem
- 방현마을의 특성(자연스쿨, 부실주택)에 인한 노후 주택의 방범성 향상
-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임대 주거시설 제공

Solution

IOT, 100 Family energy, Pasture House, U-healthcare, Zero-energy House, 4IR, Universal Design

공동생활홈
공동목욕탕
공동급식공간

공동생활홈
2층건물로 신축하여 1층은 기존의 건물보다 넓게 하고 2층은 젊은 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태양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통하여 주거비용 절감 일부 리모델링 활용

공동급식소&작은목욕탕
불규칙한 식사의 리 가정의 중분하지 않은 사외 시설로 인하여 열리까지 목욕을 다녀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 해 줄수 있는 공간,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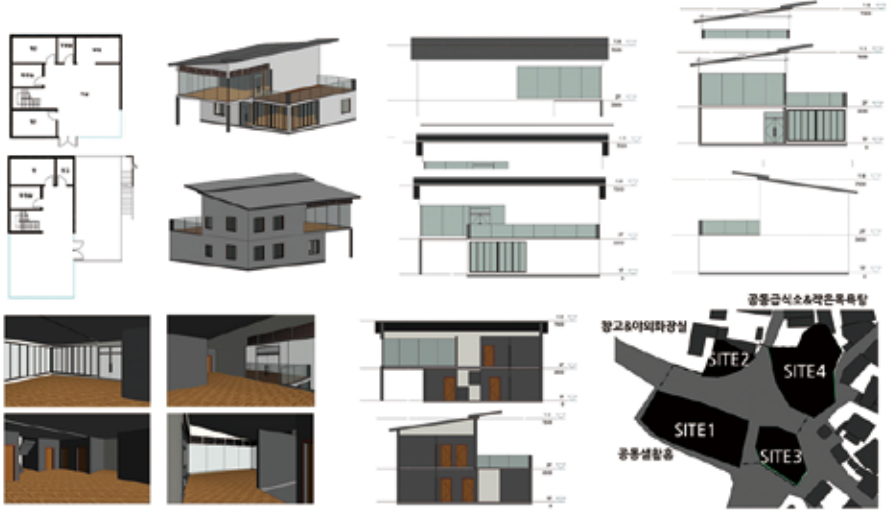
창고&야외화장실
마을에 창고가 꼭 필요 하고 현재 노후화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야외화장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둥과 벽 일부분을 제외한 리모델링

Energy System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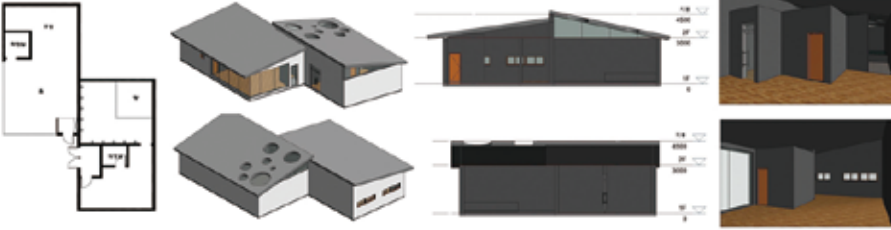
U-Healthcare
원격 의료,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헬스케어

IoT(사물 인터넷)
스마트 조명, 스마트 온도 조절, 스마트 보안, 스마트 주차, 스마트 농업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 공동 급식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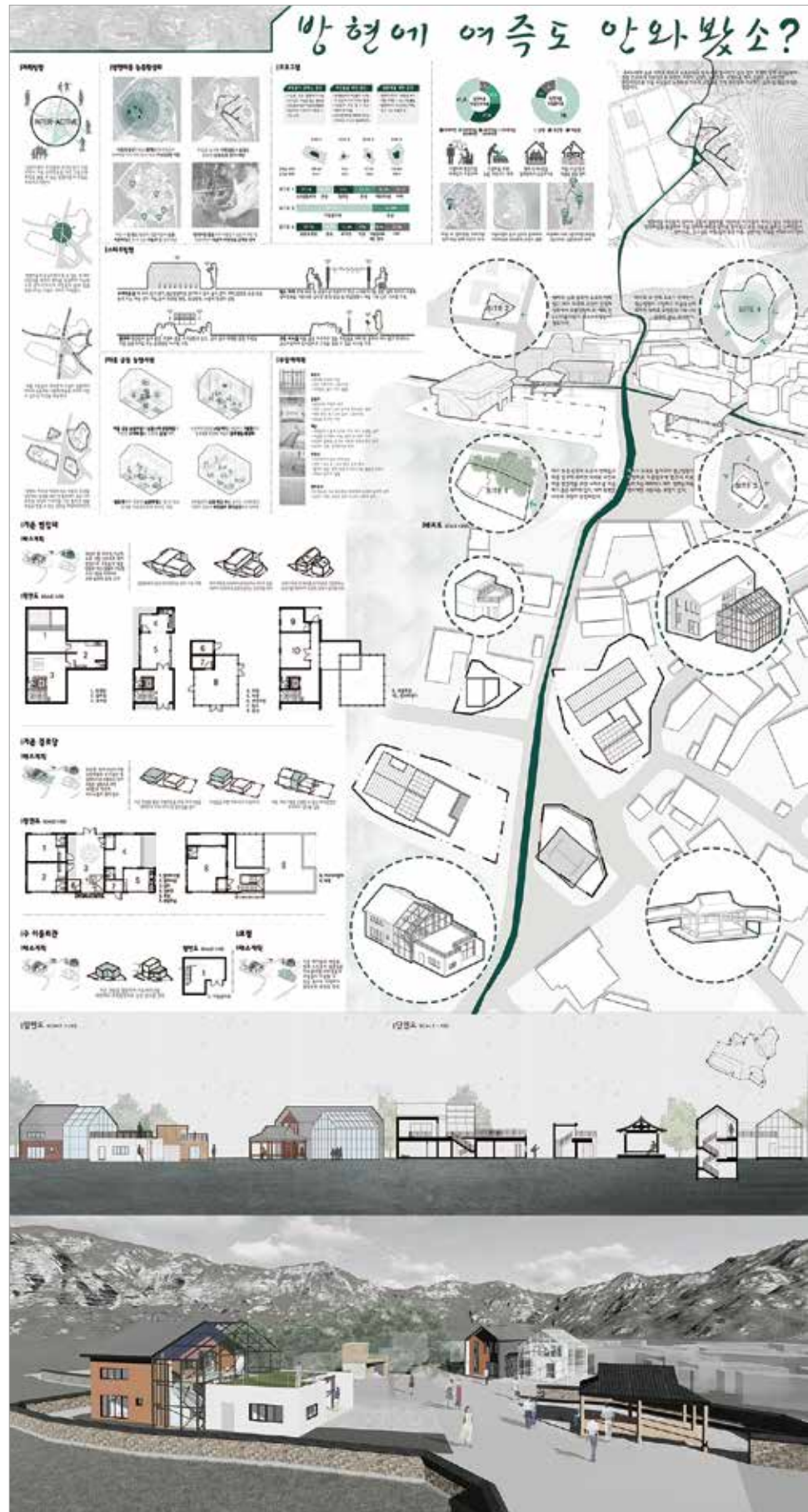


창고 & 야외 화장실



방현에 여극도 안와봤소?

나지연 강대규 김지원
충남대학교



방현의 온도

권봉경 김지민 이주향
영남대학교

방현의 온도 온도계

고령화 사회에 찾아온 적막 - 탁발기 문제

고령화 사회에 찾아온 적막 - 탁발기 문제

고령화 사회의 특징

- 고령화 사회의 특징
- 고령화 사회의 특징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방현의 온도를 측정하다 - 개요

마을 주민들의 소리 - 요구사항 개선

마을 주민들의 소리 - 요구사항 개선

마을 주민들의 소리 - 요구사항 개선

미래와 방현의 만남 - 도시가 가질 것들

미래와 방현의 만남 - 도시가 가질 것들

미래와 방현의 만남 - 도시가 가질 것들

공간에 온도를 붙여넣다 - 설계 계획

공간에 온도를 붙여넣다 - 설계 계획

공간에 온도를 붙여넣다 - 설계 계획

효율하고 차별한 온도의 유식 공간, 작은 도서관

효율하고 차별한 온도의 유식 공간, 작은 도서관

효율하고 차별한 온도의 유식 공간, 작은 도서관

친목을 다지는 따뜻한 온도의 공간, 마을회관

친목을 다지는 따뜻한 온도의 공간, 마을회관

친목을 다지는 따뜻한 온도의 공간, 마을회관

따뜻한 온기를 품고있는 공간, 공동생활홈

따뜻한 온기를 품고있는 공간, 공동생활홈

따뜻한 온기를 품고있는 공간, 공동생활홈

자료를 풀어주는 신선한 공간, 족욕탕&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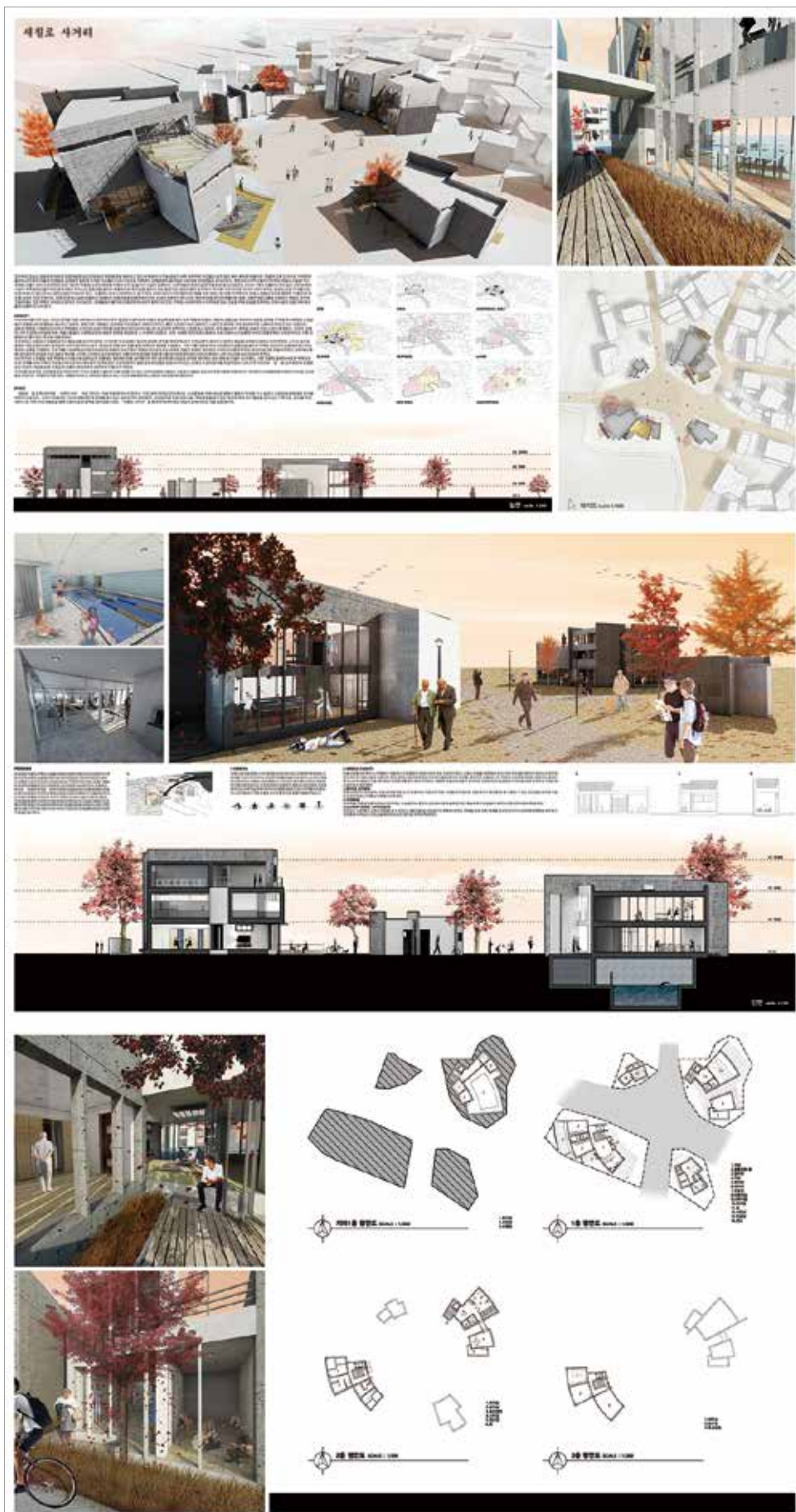
자료를 풀어주는 신선한 공간, 족욕탕&쉼터

자료를 풀어주는 신선한 공간, 족욕탕&쉼터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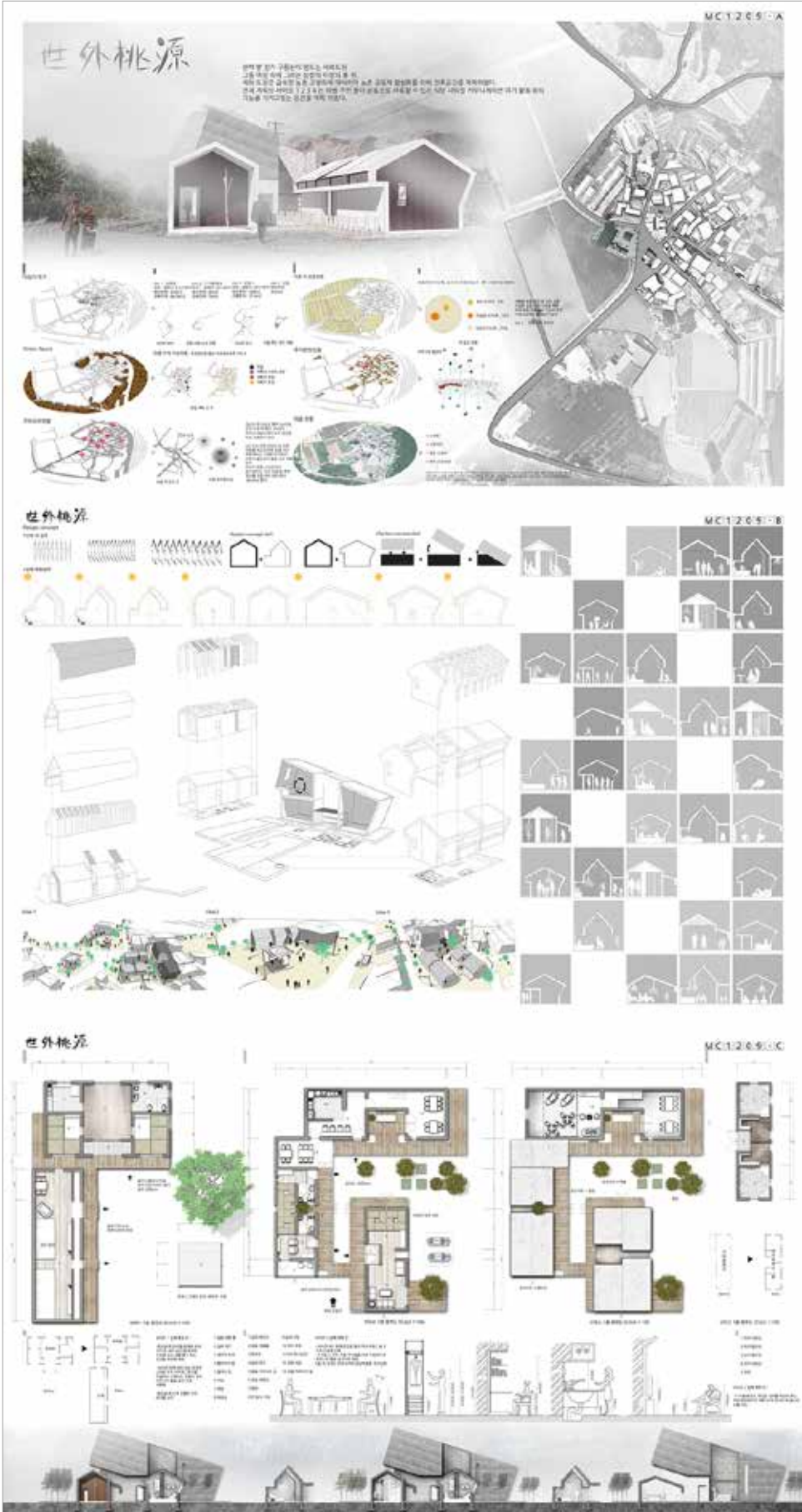
새칠로

김원재 김태영 원성민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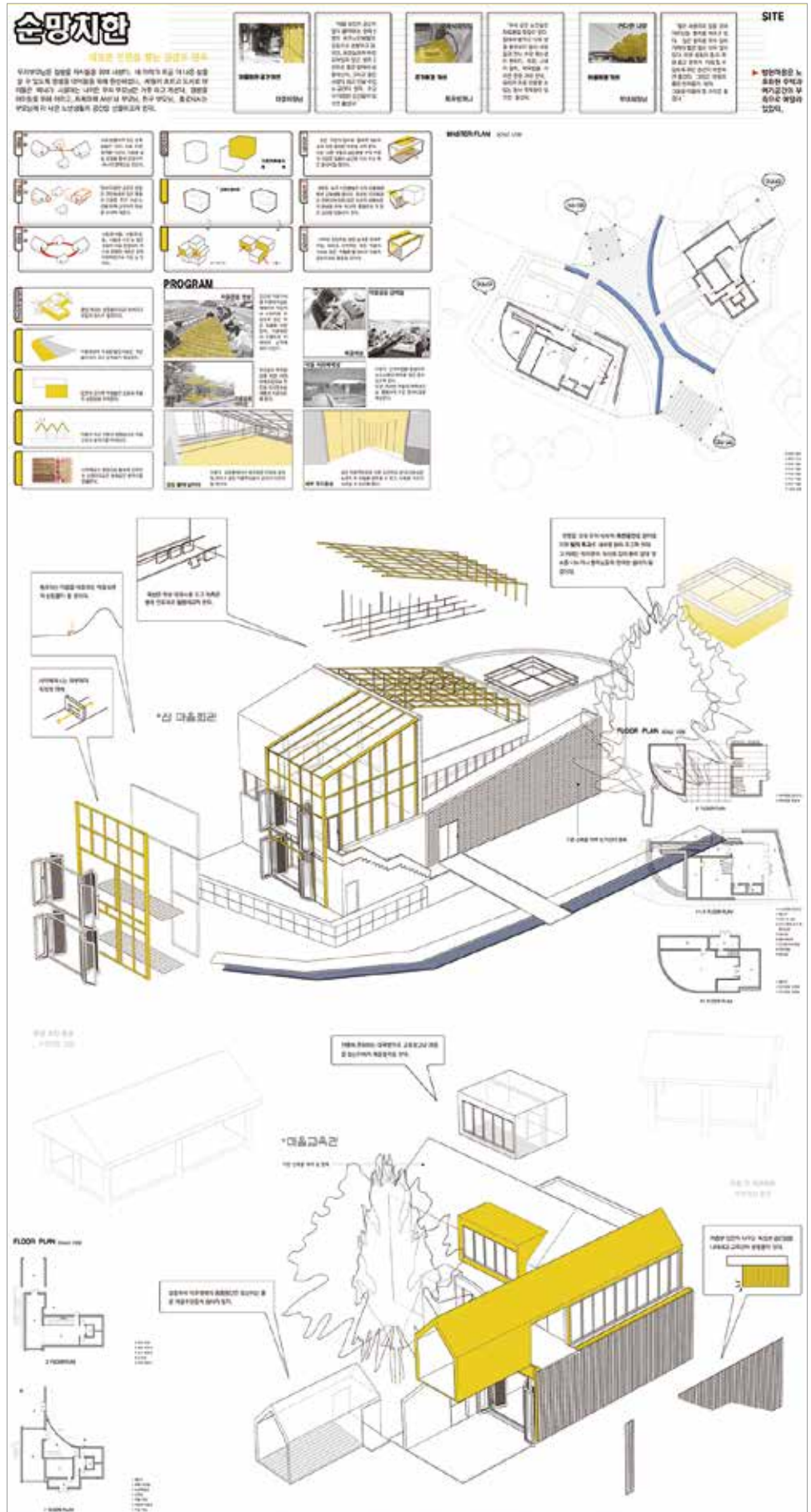
세외 도원 〈世外桃源〉

홍명성



순망치한; 새로운 인연을 쌓는 공간의 연속

김나현
목포대학교



연정지혜

이상희 장준혁 전재석
영남대학교

連情至嚳

연정지혜

발행: 2014년 11월

추천: 김기현

이 프로젝트는 영남대학교 산하에 위치한 '연정지혜'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 공동체로,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최근 농촌에는 청년층 부재로 마을을 서서히 구성하기 보다는 마을이 붕괴되어 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분석

마을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건축의 맥락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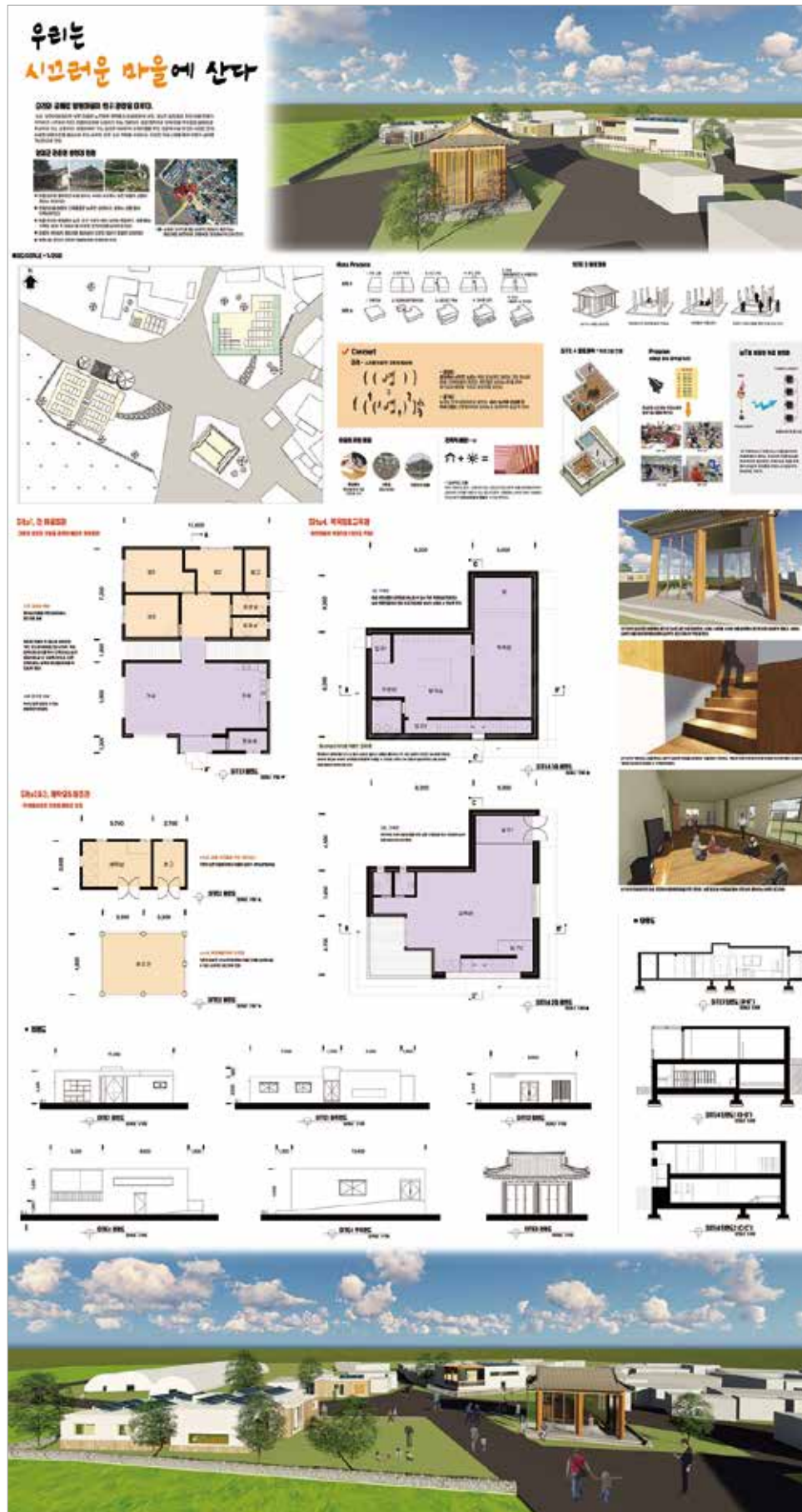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마을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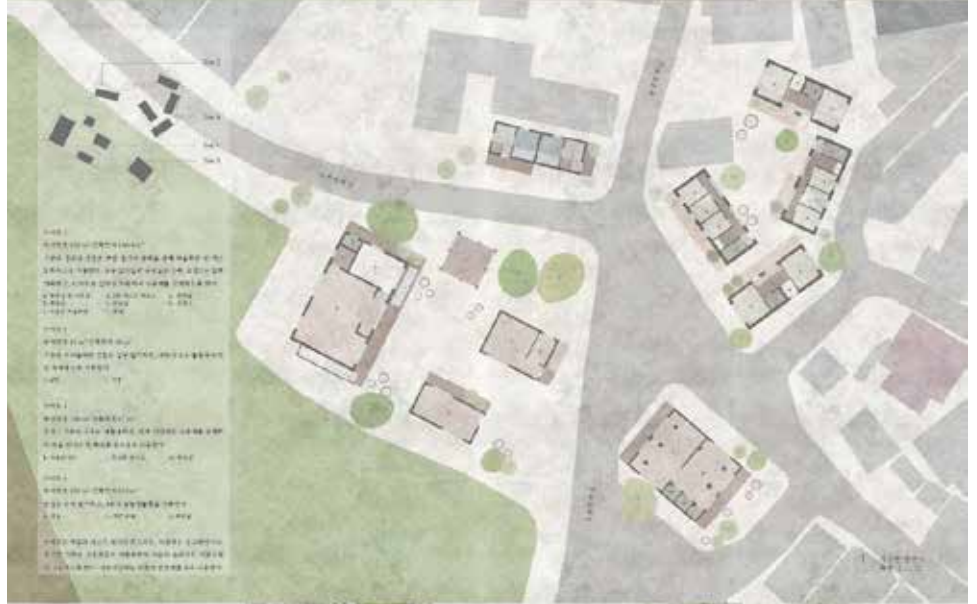
김효수 김수현 유병재
전북대학교



입선

임실秣室 - 떠들썩한방

임지선 김수경
Workshop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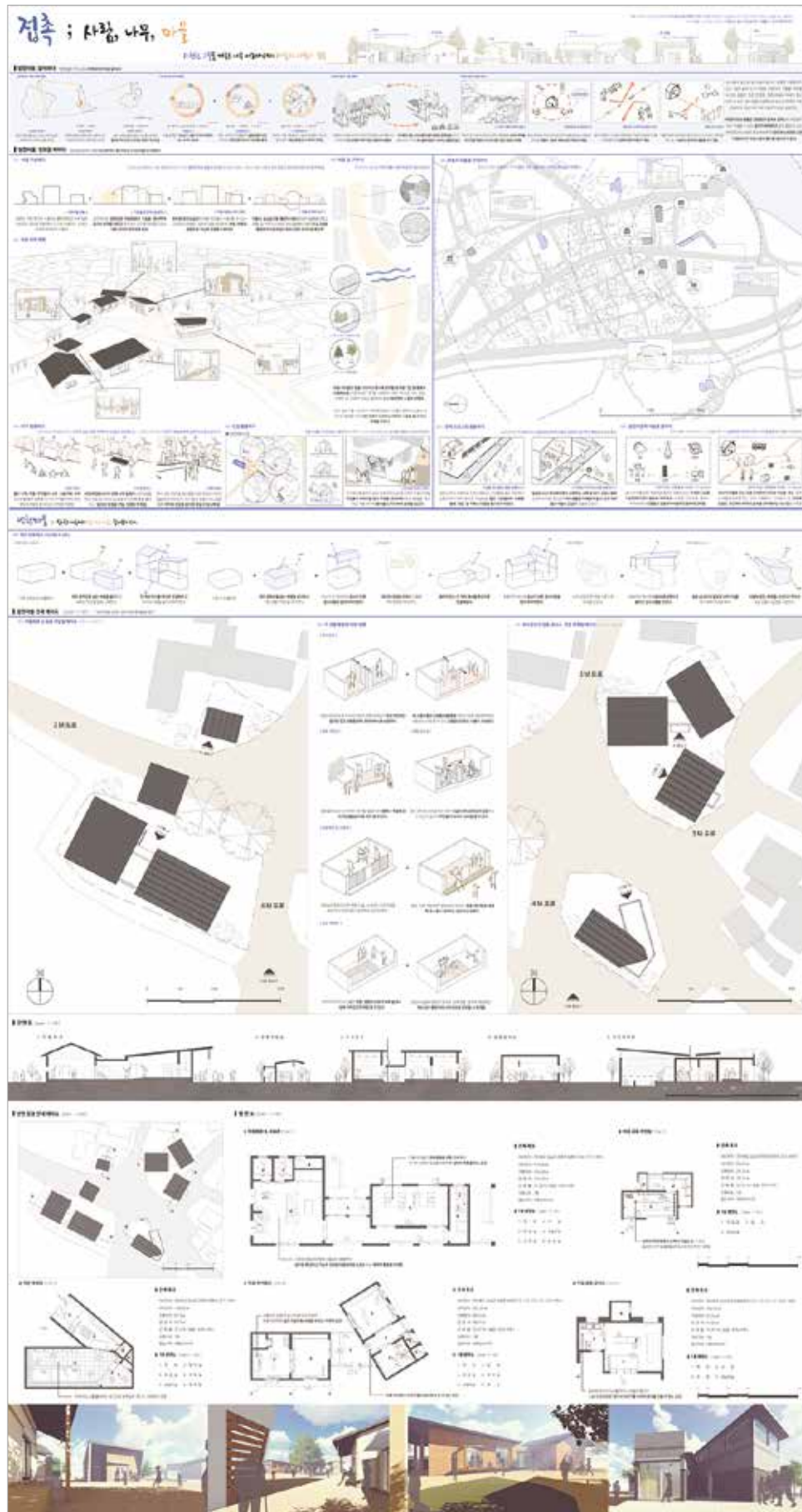
자연에 스며들다

이영찬 유지민 김상연
건국대학교



접촉 : 사람, 나무, 마을

이경훈 윤진환
전북대학교



제3의 인생

전영규 정동욱
창원대학교



후농·편농·상농 공동체

박종하
경희대학교




입선

change =
make overl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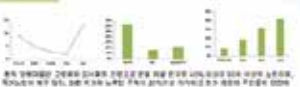
김지수 지희영
동익대학교

Change = Make Overlap

同苦同樂 (동고동락).
그들의 어울러짐




현황분석




특히 65세이상 고령화 인구는 2015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하며...

방편의 한 마디




지역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운 마을이 되어왔을까?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위치도 분석




지역 자선




1인1가 방편마을 만들기




이웃이 가꾸기




마을이 가꾸기



마을이 가꾸기



M.A.K.E. + OVERLAP = CHANGE



MEMORY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ATTEMPT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KEEP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ENCOURAGE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다같이 가꾸는 방편마을

<연선 역사촌 운영방안>

-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운영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사촌 운영방안>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 내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 내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가 마을을 꿈꾸다

마을 내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 내 자원봉사자 운영방안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 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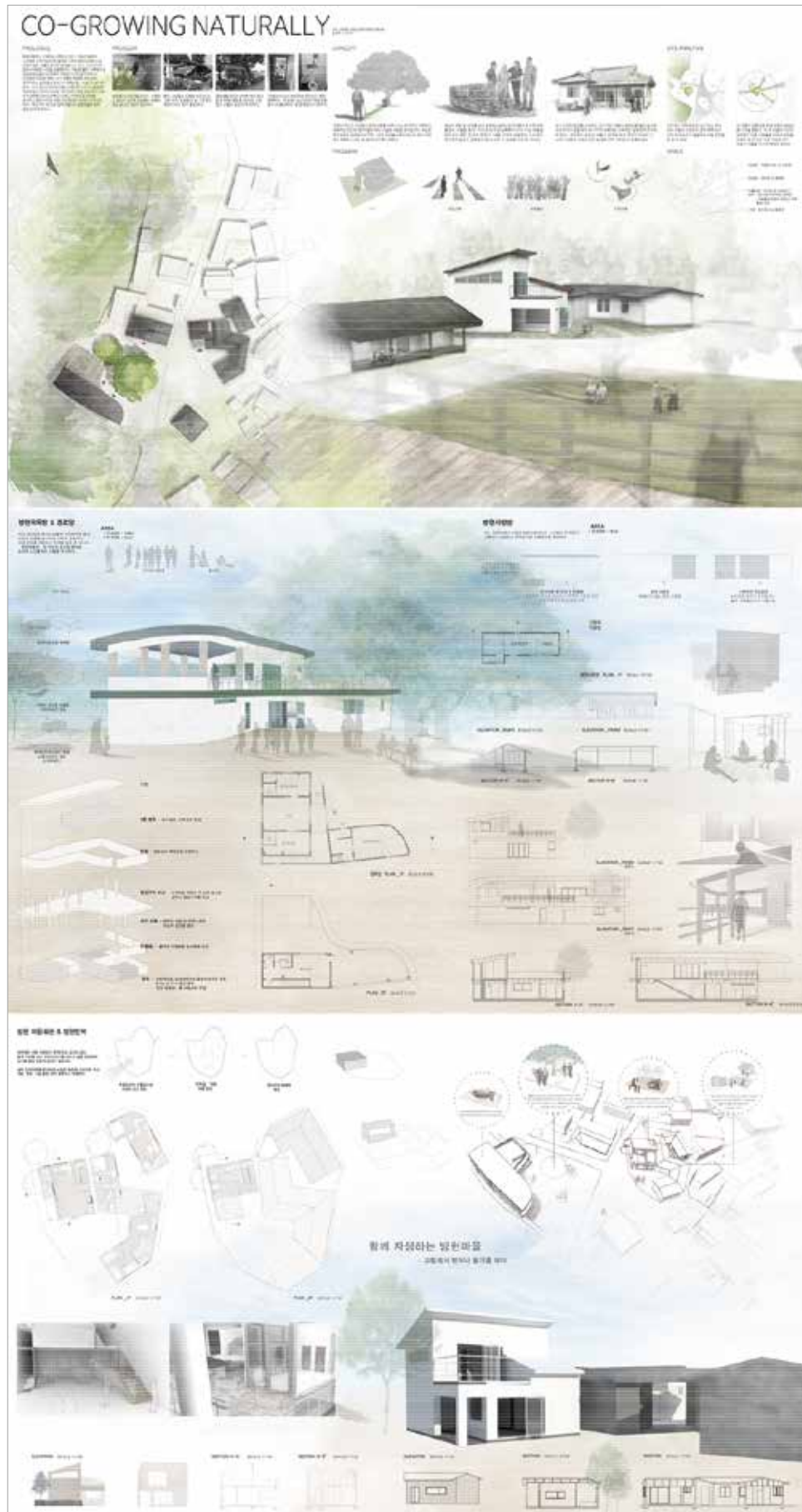


115

입선

co - growing naturally

백인엽 김정서 박소연
전남대학교



P. AS. S =
나아가다

문원식 허다운
경기대학교

방형마을, 공간을 심고 지역공동체를 수확하다

본 계획안은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방형마을은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방형마을은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계획개요

- 1. 계획지의 상황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 2. 도시의 새로운 모습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 3. 방형마을의 특징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 4. 마을의 공간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현황분석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외부 환경



계획 프로세스



평면도





외부 프로세스



외부 공간



외부 공간

외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외부 공간



외부 공간



외부 공간

외부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형마을이라는 새로운 마을 형태를 제안한다.



共Zone<공존>

김수상 정재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마을이야기
마을이야기 소개, 마을의 역사, 마을의 현황, 마을의 문제점, 마을의 비전, 마을의 전략, 마을의 실행 계획, 마을의 성과.

문제점
마을의 문제점 소개, 마을의 문제점 1, 마을의 문제점 2, 마을의 문제점 3, 마을의 문제점 4, 마을의 문제점 5, 마을의 문제점 6, 마을의 문제점 7, 마을의 문제점 8, 마을의 문제점 9, 마을의 문제점 10.

요구사항
마을의 요구사항 소개, 마을의 요구사항 1, 마을의 요구사항 2, 마을의 요구사항 3, 마을의 요구사항 4, 마을의 요구사항 5, 마을의 요구사항 6, 마을의 요구사항 7, 마을의 요구사항 8, 마을의 요구사항 9, 마을의 요구사항 10.

개념
마을의 개념 소개, 마을의 개념 1, 마을의 개념 2, 마을의 개념 3, 마을의 개념 4, 마을의 개념 5, 마을의 개념 6, 마을의 개념 7, 마을의 개념 8, 마을의 개념 9, 마을의 개념 10.

共-ZONE
마을의 비전, 마을의 전략, 마을의 실행 계획, 마을의 성과.

4차산업
마을의 4차산업 소개, 마을의 4차산업 1, 마을의 4차산업 2, 마을의 4차산업 3, 마을의 4차산업 4, 마을의 4차산업 5, 마을의 4차산업 6, 마을의 4차산업 7, 마을의 4차산업 8, 마을의 4차산업 9, 마을의 4차산업 10.

디자인 컨셉
마을의 디자인 컨셉 소개, 마을의 디자인 컨셉 1, 마을의 디자인 컨셉 2, 마을의 디자인 컨셉 3, 마을의 디자인 컨셉 4, 마을의 디자인 컨셉 5, 마을의 디자인 컨셉 6, 마을의 디자인 컨셉 7, 마을의 디자인 컨셉 8, 마을의 디자인 컨셉 9, 마을의 디자인 컨셉 10.

무상해계획
마을의 무상해계획 소개, 마을의 무상해계획 1, 마을의 무상해계획 2, 마을의 무상해계획 3, 마을의 무상해계획 4, 마을의 무상해계획 5, 마을의 무상해계획 6, 마을의 무상해계획 7, 마을의 무상해계획 8, 마을의 무상해계획 9, 마을의 무상해계획 10.

배치도
마을의 배치도 소개, 마을의 배치도 1, 마을의 배치도 2, 마을의 배치도 3, 마을의 배치도 4, 마을의 배치도 5, 마을의 배치도 6, 마을의 배치도 7, 마을의 배치도 8, 마을의 배치도 9, 마을의 배치도 10.

3층 평면도
마을의 3층 평면도 소개, 마을의 3층 평면도 1, 마을의 3층 평면도 2, 마을의 3층 평면도 3, 마을의 3층 평면도 4, 마을의 3층 평면도 5, 마을의 3층 평면도 6, 마을의 3층 평면도 7, 마을의 3층 평면도 8, 마을의 3층 평면도 9, 마을의 3층 평면도 10.

단면도
마을의 단면도 소개, 마을의 단면도 1, 마을의 단면도 2, 마을의 단면도 3, 마을의 단면도 4, 마을의 단면도 5, 마을의 단면도 6, 마을의 단면도 7, 마을의 단면도 8, 마을의 단면도 9, 마을의 단면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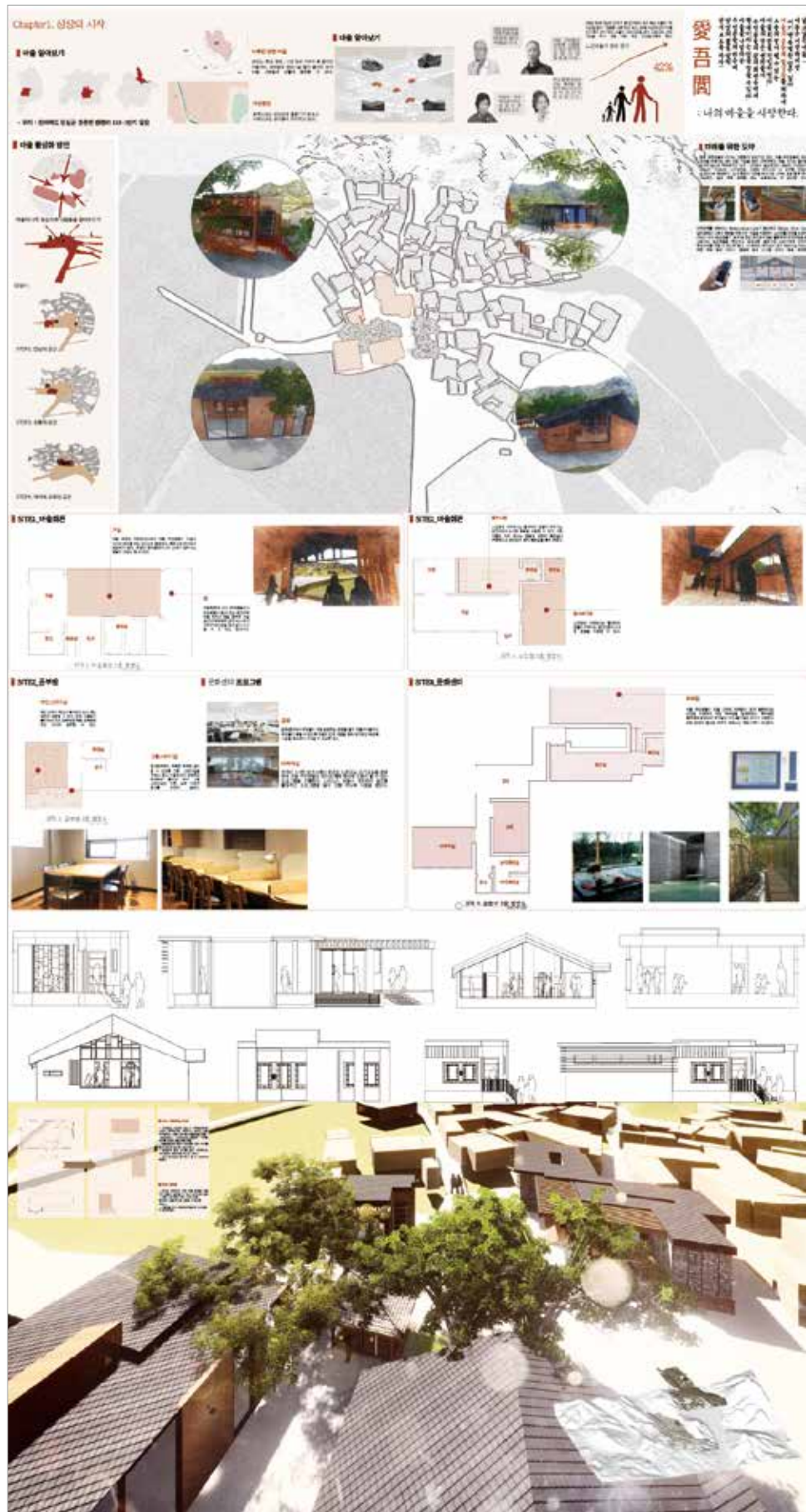
입면도
마을의 입면도 소개, 마을의 입면도 1, 마을의 입면도 2, 마을의 입면도 3, 마을의 입면도 4, 마을의 입면도 5, 마을의 입면도 6, 마을의 입면도 7, 마을의 입면도 8, 마을의 입면도 9, 마을의 입면도 10.

10층 평면도
마을의 10층 평면도 소개, 마을의 10층 평면도 1, 마을의 10층 평면도 2, 마을의 10층 평면도 3, 마을의 10층 평면도 4, 마을의 10층 평면도 5, 마을의 10층 평면도 6, 마을의 10층 평면도 7, 마을의 10층 평면도 8, 마을의 10층 평면도 9, 마을의 10층 평면도 10.

28층 평면도
마을의 28층 평면도 소개, 마을의 28층 평면도 1, 마을의 28층 평면도 2, 마을의 28층 평면도 3, 마을의 28층 평면도 4, 마을의 28층 평면도 5, 마을의 28층 평면도 6, 마을의 28층 평면도 7, 마을의 28층 평면도 8, 마을의 28층 평면도 9, 마을의 28층 평면도 10.

愛吾閭 〈내 마을을 사랑한다〉

최지은 강민지
전북대학교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

진행과정

운영위원회



심사

1차 심사 준공부문 / 계획부문 동시 진행



현장 심사 준공부문



2차 심사 계획부문



3차 심사 계획부문



전시



시상



공모전 포스터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기획부문

공모내용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

공모자격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을 전공하는 대학원 또는 일반인

대상지 방백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관동면 방백리 234번지 일대)
부지가 7천㎡, 세를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1번지 일대)

참가신청 신청기간: 6월 19일(월)~7월 14일(금)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분	구분	상한	상금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00 만원
우수상	2	한국농촌공사 사장상	각 200 만원
특선	4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상	각 100 만원
특별이	1	임실군수상	기념품
합선	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기념품

준공부문

공모내용 국내 농어촌지역(읍면)에 집중 완료된 우수한 건축물

공모지역 개인(상계지 또는 건축주) 또는 팀(상계지+건축주) 구성

- 상계지: 건축물 대장 또는 설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상계지
- 건축주: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주

참가신청 신청기간: 6월 19일(월)~7월 26일(수)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분	구분	상한(상계지)	상한(건축주)
대상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어촌지역 아름다운 건축물"
합선	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건축물 부처를 방문수여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문의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사무국
 • 이 메 일 : ruralarchi@naver.com
 • 주 소 : 대전 중구 동양로 130번길 43 3층
 • 전 화 : 010-4822-1034

홈페이지 www.raise.go.kr/ruralarchi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어촌공사

전시 리플렛

한국 농촌계획대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계획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농촌건축 및 국토종합계획분야 최우수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우수농촌 건축계획의 공익적 향상 및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재밌고 스킨쉽 농촌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농촌마을이 거꾸로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연을 발견하고 마을의 정체성 가치를 찾아내어 시각 산업과 접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의 제언한 농촌에 대한 멋진 구상을 응모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달리고 행복한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60여명 씩의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계획대전 대상 / 특례상



대상/특례상
 무궁화(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우수상/특별상



우수상/특별상
 금강의 송달(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특선



특선
 내 마을속에 희망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특선
 산촌 그 꿈은 지름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제12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제15회 한국농촌 계획대전

서울 메트로 미술관 1관
 2017.10.26 목요일
 15시~16시

한국 농촌건축대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건축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여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우수농촌 건축계획의 건축계획 분야를 통해 지역발달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삶이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어촌지역의 우수건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부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고향사랑을 위한 건축물 공간설계 및 주제로 특선 및 일반인들의 공간계획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계획부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상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건축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기 위한 시도를 해온 한국농촌건축대전은 올해는 농촌과 농촌건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건축대전 계획부문

대상



대상
 정안동 풍촌마을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우수상



우수상
 금강의 송달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우수상



우수상
 금강의 송달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장려상/특별상



장려상/특별상
 도산도산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장려상



장려상
 산촌 그 꿈은 지름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장려상



장려상
 산촌 그 꿈은 지름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한국농촌건축대전 준공부문

대상



대상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477호 2호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본상



본상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477호 2호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장려상



장려상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477호 2호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 최우수상(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시)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12th Korean Rural Architecture Competition

—

초판 1쇄 인쇄 2017년 12월

초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편집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전화 044)201-1558~9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99-14

ISBN 979-11-86183-18-2(9361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34278)

*비매품